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하는 자들이 있어왔지만 그에 맞서 하나님
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
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왔음을
깨닫고 이 종말의 시대에도 더욱 복음전
파에 힘쓰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
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
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9월 1일 (토) 제 1696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미국 교인들에게 전도는 “걸림돌” ?

바나리서치, 설문결과들 통해 미국교회 전도 상황 위험수위 넘었다고 경고

미국 교회 전도 활동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전도는 모든 크리스천의 의무”라는 사실을 수용하는 크리스천은 이제 64%로, 1993년의 89%에 비해 25%나 감소됐다. 한마디로, 전도는 교회나 목회자의 책임이지, 교회에 다니는 내가 구태여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디지털 시대의 복음 전도 역시 일반적인 추측과는 달리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를 더 자주 사용하는 크리스천 젊은층이 ‘디지털 부작용’에 대해 한층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복음

에 대해서는 디지털 세대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한 편이다. 이들에게는 소셜미디어에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일이 난처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여겨진다.

또 크리스천들에게 영적인 대화는 거리감의 단골손님이다. 무조건 피하고 싶고, 말려들고 싶지 않는 주제가 돼버린 것이다. 구태여 손가락질이나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까지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다는 것이, 미국 교인들의 속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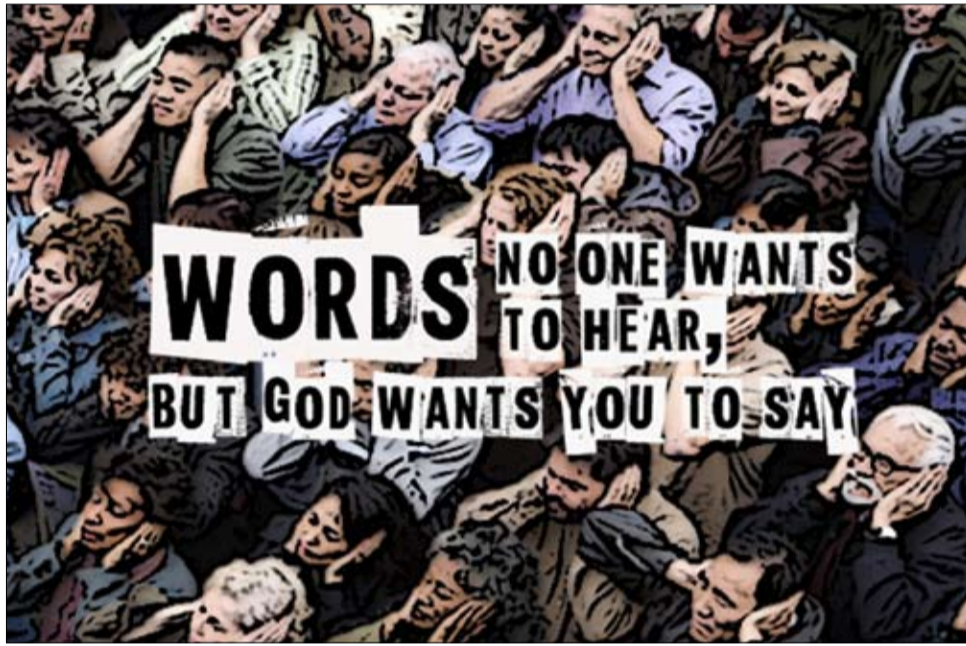
바나리서치는 일련의 설문 조사 결과들을 통해, 미국 교회의 전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해준다.

먼저, 지난 5월에 발표된 결과(Sharing Faith Is Increasingly Optional to Christians)를 정리하자면, 미국 크리스천들이 이전보다 전도에 열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전도는 (개인 아닌) 지역교회의 책임이다”라는 견해는 1993년엔 10%였다. 그러나 지금은 약 3분의1(29%)이 그런 견해를 보여 거의 3배로 늘었다.

또 지난 25년간 전도에 대한 접근 방식도 사뭇 달라졌다. 요즘 가장 흔한 접근 방식은, 상대방의 신앙과 경험에 관한 질문 방식(70%)이다. 그 다음은 복음 자체를 말하기보다 살아가는 삶을 말하면서 나누는 방법(65%)이다. 이 두 가지는 1990년대에도 비교적 흔했던 방법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혜택을 강조하는 방식(78%)이었다. 하지만 이 전략의 활용도가 현재는 50%에 그치고 있다.

전도할 때 성구를 인용하는 신자들도 줄어들었다(1993년 59% 대 현재 37%). 전도자 자신이 처음 믿었을 때의 간증을 한다는 경우는 93년 당시 57%였으나 현재는 45%. “전도하기 전 기도한다”는 사람 역시 53% 대 45%로 줄었다. 상대방 자신의 ‘신앙’을 방어하도록 도전하고 기독교로 변증하는 방식은 43% 대 24%로 거의 절반이 줄었다. “매번 기본 전도법으로 접근(approach)하며 결과에 만족한다”는 반응은 44%(93년) 대 33%다.

전도는 지상명령으로 크리스천에게는 필



수적 당면과제다. 그런데도 대다수 크리스천들은 전도 무용론 또는 무력증에 빠졌다. 그 이유는 세속주의와 상대주의, 다원주의와 디지털 시대의 트렌드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적 대화를 할 ‘여유’가 점점 주 변하고 내지 번두리화 된다는 점이다.

그 결과로, 크리스천들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개종과 전도를 더부시하는 점증하는 사회적 경향이라는 둘 사이에 갈등을 겪고 있다.

두 번째로, 바나리는 거의 같은 시기에 “디지털 시대의 영적 대화(Spiritual Conversations in the Digital Age)”라는 제하로, 실제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적인 담론이나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는지

를 발표했다.

크리스천 중 3명 당 1명이 SNS를 통해 믿음을 나누고 있었다. 또 30%는 ‘개인적으로 이메일 등 인터넷을 통해 신앙을 나누는 편이다’고 답변했으며 12%는 ‘적극적으로 디지털 미디어로 신앙을 나눈다’고 밝혔다.
또한 크리스천 중에서는 ‘비신자와 신앙을 나눌 때 이메일, 동영상, 링크, 페이스북 등 디지털 대화 통로를 사용한다’고 밝힌 사람이 31%로 나타났다. 또 ‘신앙을 나눌 때 디지털 소통 방식이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는 크리스천은 47%에 달해 절반에 육박했다.

〈3면으로 계속〉

페이스북 요긴하게 사용하면 목회에 도움

UMC 9월 목회가이드... 페이스북 통해 교인,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아이디어 소개

목회자 여러분들 대부분은 페이스북을 사용해봤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에 관해서 고민한 적도 있을 것이다. 이번 가을에 교인들과 온라인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눈여겨 보자(5 ideas for church to communicate the community).

랍의 네트워크에 교회 이름을 전파하는데 도움이 된다. 여기에 교회를 위한 다른 휴가 도전들이 있다.

2. 보물찾기 또는 숨바꼭질

세계적으로 유명한 챔피언십 스케이트 보더인 토니 호크(Tony Hawk)는 트위터 계정과 팔로워들의 네트워크를 사용해 정기적인 “Twitter Hunt”를 실시한다. 그는 스케이트보드, 사인한 물건 또는 그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세계 전역에 숨길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서면 또는 사진 단서를 트윗한다.

이 세계 보물찾기의 유일한 규칙은 보물을 찾은 사람이 발견된 보물을 가지고 자신의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이 아이디어를 한 달 동안 계속되는 보물찾기로 활용할 수 있다. 매일 또는 매주 한 번 항목을 숨긴다. 숨겨진 보물을 찾을 수 있는 단서, 사진의 한 부분, 비디오 및 메모를 제공한다. 보물을 찾은 사람이 갖게 된다.

〈3면으로 계속〉

1. 지난여름에 무엇을 했나요?

이것은 아이들이 여름 동안의 모험에서 사진과 기념품을 가져와서 자신들이 방학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려주는 초등학교 활동이다. 교인들이 여름 활동사진을 교회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공유하도록 초대하는 것으로 적용해본다. ‘가장 멀리 간 여행’, ‘가장 색다른 여행’ 혹은 ‘이번 휴가 후에 필요한 휴가’와 같이 특별한 카테고리로서 경연을 열어 특별 상품을 준비해본다.

사람들이 사진을 올리면서, 태그를 달거나, 사람들이 자신의 사진을 교회 위치와 공유하게 한다. 이것은 모든 사



“세계 어느 곳에서든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p>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p>	<p>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p>	<p>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p>
---------------------------------------	---------------------------------------------------------------------------------------------------------------	---------------------------------------------------------

월드미션대학교 |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 뉴저지 Tel. 201) 346-0030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우표 (행정 가격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액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aboo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p></p> <p>시론 김풍운 목사</p> <p>2면</p>	<p></p> <p>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p> <p>7면</p>
----------------------------------------	------------------------------------------------

성경을 깊이 읽을 수 있는 교재

신·구약 성경대학문제(개역개정판)

신·구약 성경대학문제를 펴내면서

1. 미주 목회 32년 동안 매주 출제했던 성경문제들을 정리해서 바람직하게 엮은 것입니다.
2. 출제한 내용들은,
 - 1) 복음적 내용들입니다(하나님의 구원과 구원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성구나 내용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2)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도록 하였습니다.
 - 3) 문제의 모든 답은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3. 매주 한 과씩 공부해서, 1년에 한 번 이상(2~3년) 신구약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 추천사

*이 선 박사(당시 90세, 1990년도, 2011년도 노벨의학상 후보)
저는 의과대학 교수로서 지금까지(90세) 학교(UCSD-CA-의과대학 교수 및 미세수술연구소장)에만 평생 매달려 살았기 때문에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문제를 하려고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고 유익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만 1년 동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문제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참여하고 수료증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 문제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신구약성경 전서를 통독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나로 하여금 성경을 통독하도록 인도하신 홀 목사님을 나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같이 직장과 공직에 매여 바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체계적으로 통독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성경대학 문제집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출처: 그의 자서전의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들”중에서)

△ 출제자-홍춘만 목사 학력

-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수학과 졸업(B.S.)
- *서울 감리교신학대학 3년 수료
-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원 졸업(M. Div.)
- *월드미션대학(World Mission University, LA, CA) 명예박사(H.D.M.)

△ 감의 및 저서

- *크로스웨이성경연구 북미주교역자 전임강사(24년)
- *복음신문사주관 교역자수련회 7년 강사(성경암기법)
- *부흥회 및 제직수련회 50여회(LA동양선교교회, LA영락교회, OC베델교회, 한국 주안장로교회 등)
- *저서-(성경암기법(신약편)), (신구약성경대학원문제집), (신약+시가서, 성경대학문제(1권)), (구약+시가서, 성경대학문제(2권))

△ 책 구입할 곳-기독교서적센터

(323)737-7699, 4526
1027 S. Western Ave., #2, Los Angeles, CA 90006
1권 신약성경+시가서(읍,시,장,전,아) (334면) 책 가격 : \$20.00



시론

잠잠하라



김동운 목사
(백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

하루는 낮에 예배당에 홀로 앉아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이 큰 물결처럼 필자의 마음에 밀려옴을 느꼈습니다.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것은 주전 약 600년경 유다의 선지자였던 하박국에게 임한 묵시의 경고의 말씀 중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잠잠할지니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던 중 다음과 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필자와 함께 이 글을 읽는 모두가 적용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따지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하박국은 "왜 불의한 자들이 잘되나요?"라고 질문했고 하나님은 갈대아인들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은 이어 "왜 더 불의한 자들(갈대아인)을 통하여 심판하시나요?"라고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은 불의하고 잔인하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신 후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결론적으로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박국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1:13)라고 따지듯이 하나님과 변론하자 하나님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라고 말씀하시므로 더디더라도 기다리라(2:3)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좀 안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하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따질 수 없는 피조물이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따지며 말을 많이 하고 있던 하박국에게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2:2)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말을 못하도록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2:4)라고 말씀하시므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하신 것입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지 않았으므로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던 도마에게 창자국난 옆구리와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시며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방불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따지거나 의심할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스가라 2장 13절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잠잠하지 않고 도를 넘는 말과 행동을 할 때에 보좌에서 일어서시는 모습에 대하여 묘사합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니라." 여호와 앞에서 서서 잠잠해야 할 육체가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불평한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1장에서 세 번이나 "어찌하여"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따졌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불평한 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고통과 고통과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변론이 일어났나이다"(1:3).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1:13)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1:14). 따지며 의심하며 불평하던 하박국이 "잠잠할지니라"는 말씀을 듣고 성전에 었드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은혜를 부으셔서 놀라운 찬송을 부르게 하셨습니다(합3:17-19).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오늘도 문제 많은 세상과 교회 속에서 씨름하는 성도들에게 힘 있는 사슴이 되어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따지지 말고 기다리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필자가 받은 말씀을 마무리하며 마가복음 4장 38-39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우주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잠잠하라"고 명령하시면 곧 잠잠한데 사람들은 잠잠하지 않고 계속 따지고(reason) 의심하고(doubt) 불평합니다(complain). 분주한 일상을 접고 모두 성전으로 들어가 잠잠하라는 말씀 속에서 각자에게 들리는 음성을 들어봅시다!

pwkim529@gmail.com

정보화시대가 주는 GPS에서 벗어나야 한다!

FT, J. 윌리엄스 신간서평 통해 '실리콘밸리 제공 정보환경에서 분별력 요구된다' 밝혀

제임스 윌리엄스(James Williams)는 구글에서 광고 전략 책임자로 일했고, 옥스포드 대학원에서 철학을 전공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정보화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의(집중)의 경제학(the attention economy)"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클릭 한 번으로 우리는 무궁무진한 정보의 바다에 빠져들게 된다. 새로운 정보화 사회라는 환경에서 우리는 자칫하면 삶의 진정한 의미나 목적을 추구하기보다는 과잉 정보의 홍수에 너

무 쉽게 휩싸여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의 저서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 달라(Stand Out of Our Light: Freedom and Resistance in the Attention Economy)" 리뷰를 통해 왜 우리에게 "주의의 경제학"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를 말해준다(Stand Out of Our Light, by James Williams: A philosophical study of the 'faulty GPS' that guides us in the age of Big Tech).

대형 기술 회사들이 이끄는 시대에 우리는 '잘못된 GPS'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 여러 분에게 당부한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끄고, 편안한 의자에 기대앉아, 완전히, 최선을 다해서 짧고, 흥미진진하고, 깊은 고민을 하게 하는 이 책을 읽어보라.

가끔 우리는 기술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해보려고 노력한다. 만약 여러



윌리엄스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는 전략적으로 사람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최근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약 4억4천8백여 개의 글을 SNS에 올린다. 소위 '역 검열(reverse censorship)'이라고 알려진 이 방식으로 중국은 정치선전을 퍼트리기도 하는 반

기술이 오히려 주의산만 초래...사람의 자각영역 침범 경계 기술자는 기술 의도와 방법에 대해 사용자와 의사소통해야

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기술전문가에서 철학자로 전환한 제임스 윌리엄스가 이 문제에 대해 내린 결론을 들여다보면 어떨까?

그는 현대의 기술력이 예전에는 설득력 떨어지는 주장에 그칠 이야기들을 전문적인 사기꾼의 수준으로 올려버렸고, 그 결과 우리는 존 스투어트 밀이 말한 자유의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내면의 자각(inward domain of consciousness)"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말한다.

윌리엄스는 "인간이 목표한 바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가 산만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세대가 직면한 가장 큰 도덕적, 정치적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는 "지적 시스템을 개선하고 적대적인 주장이 우리의 자각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윌리엄스는 구글에서 전략 전문가로 일하던 시기에 모든 정보를 많은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정보를 보다 유용하게 만들려고 하는 구글의 비전에 크게 공감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사람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기술이 오히려 사람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는 것

을 깨달았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

윌리엄스는 우리가 세우는 목표와 기술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목표가 다를 수 있음을 깨달았다. 기술 산업을 이끄는 지표들, 예를 들어 조회 수나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머무르는 시간, 클릭 수, 전환율 등은 중요하지 않고 본질에서 벗어난 지표들로 느껴졌다. 이 책에 나오는 수많은 비유 중 하나를 예로 들자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못된 GPS 좌표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

윌리엄스는 어떤 현상이라도 더욱 깊게 탐구하려는 성향의 사람이다. 결국 윌리엄스는 이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옥스포드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했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는 어떻게 기술이 사람을 변화(re-programming) 시키는 지, 그리고 왜 인간이 인간적인 가치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윌리엄스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로, 우리가 가상의 세계를 개념화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람들은 클릭베이트(clickbait),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와 같이 특정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들을 만들었지만 정작 개인이, 그리고 집단 전체가 기술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 주의가 산만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틀은 부재하다고 말한다.

"내가 쓰는 언어의 한계가 나의 세상의 한계입니다."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은 말했다. 윌리엄스는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집단의 차원에서 우리는 마치 방향을 잃은 배처럼 표류하기 전에 사회적, 정치적 목표를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3면으로 계속)

<p>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p> <p>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9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p>	<p>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 유원정</p> <p>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nychpress@gmail.com</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

Global Korean Women Pasors Association

창립 2주년 감사예배

초대의 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는 말씀으로 시작된 글로벌한인여성목회자 연합회가 2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 주셨던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2018년 9월 12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뉴욕순복음연합교회(양승호 목사)
168-08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강사 김삼수 목사(대구 푸른하늘교회)

주관: 글로벌 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회장 권금주 목사)
후원: * (한국 대구) 푸른하늘교회(김삼수 목사, 신동숙 교수)
* 글로벌-뉴저지, 커네티컷, 텍사스, 오하이오-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
* 한국어머니기도회 * 캐나다 어머니기도회

미국 교인들에게 전도는 “걸림돌” ?

(1면에서 계속)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인 추측과 달리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를 더 자주 사용하는 크리스천 젊은층이 '디지털 부작용'에 대해 한층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복음에 대해서는 디지털 세대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한 편이다. 이들에게는 소셜미디어에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일이 난처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여겨진다.

온라인상에서 영적인 대화를 기피하는 현상은 세대별로 분명한 차이를 보일 정도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45%, X세대가 60%, 밀레니얼세대는 64%를 차지했다. 청년층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것이다. 즉 디지털 기기를 더 자주 사용하는 젊은 층이 부작용과 폐단에 대해서도 더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나는 성인 1,714명에게 종교적인 대화, 즉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물었다

(Why People Are Reluctant to Discuss Faith).

실문 결과에 따르면, 영적인 대화는 일종의 '걸림돌'과 같은 대상이다. 한마디로,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주제이고, 선뜻 나서서 이야기하기에는 주



저되는 양면성을 가진다. 이외에도, 영적인 대화를 꺼리는 가장 흔한 이유들로는 “종교인으로 인식되는 것이 싫다(7%)”, “상대방에게 이상한 소리로 들리지 않게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주제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를 모르겠다(6%)”, “사람들이 자신을 광신도나 극단주의자로 여길까 걱정이 된다(5%)”, “일상에서 종

교적인 언어가 사용되는 것이 당황스럽다(5%)”, “과거에 종교적인 대화로 인해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4%)”, “종교적 언어와 전문용어가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 느낌이 든다(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밀레니얼세대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광신도나 극단주의자로 간주할까 걱정하는 것이 10%로 X세대 3%, 베이비부머세대 4%, 노인세대 1%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복음은 나누지 않으면 의미를 상실한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내 안에서 넘쳐나는 감동과 감격 그리고 은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식었거나 혹은 아예 없기에 전도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저버리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가 독선에 빠져있다고 지적받는 두려움이 더해지기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곁돌고 있다.

구원의 감격을 디지털 시대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는 지혜와 통찰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다.

소망 칼럼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요 사명이다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미국 워싱턴의 상원의원 한 사람이 벨기에 대사를 집으로 초대했다. 그런데 이 상원의원의 부친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인이었고,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기만 하면 항상 복음을 전했다. 벨기에 대사를 초대하던 날, 상원의원은 자신의 부친이 벨기에 대사에게 복음을 전하여 당황하게 할 것 같아, 아버지에게 그 사람을 보고 복음 전하는 일은 하지 말아 달라는 각별한 부탁을 드렸다. 대사가 상원의원의 집에 도착하여 각 식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드디어 상원의원의 부친도 소개되었다. 이때 상원의원의 부친은 그 대사에게 항상 누구에게나 했던 것처럼 질문을 했다. “대사께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자 상원의원과 대사 모두 당황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상원의원의 부친은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에는 많은 꽃다발이 증정되었다. 그런데 그 많은 화환 중 유난히 눈에 띄고 크고 아름다운 화환이 있었고, 그 화환에는 이런 글이 적힌 카드가 꽂혀 있었다. “나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준 미국 안에서의 단 한 사람을 마음속 깊이 기리며” 그것은 바로 상원의원의 아버지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벨기에 대사가 보낸 것이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지상명령(至上命令)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시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 미국의 상원의원의 아버지처럼, 또한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누구를 만나든 또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반성해보아야겠다.

다른 사람들 보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스도인 중에 전도하는 사람이 주님보시기에 가장 아름답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하였다. 바울은 자기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자신이 받을 자람의 면류관이며, 바라는 영광이요 소망이며 누릴 기쁨이라 했다(살전2:19-20). 면류관에 붙은 별의 수는 전도한 사람의 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의인 99명을 인하여 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셨다(눅15:7).

전도하는 교인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성도이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영광스런 축복이 임한다.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열매 맺는 신자가 되기 원하는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가? 전도를 많이 하라.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였다.

nammicj@hanmail.net

페이스북 요긴하게 사용하면 목회에 도움

(1면에서 계속)

또 다른 재미있는 아이디어는 마을 주변에 교회 직원을 숨기는 것이다. 이 게임은 청소년과 청년에게 진정으로 흥미를 끌 수 있다. 따라서 잘 숨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페이스북에서 2주 전에 게임을 홍보하고 사람이 숨을 시간을 강조한다.

단서가 너무 쉽다면 재미가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숨일 숨어있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시작할 때 어려운 단서를,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쉬운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숨기 좋은 장소들이 있다(상품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이스크림 아니 커피숍 △플러 스케이트, 레이저 택이나 페인트볼 경기장 △음반판매점, 서점, 혹은 쇼핑몰 △야외 공연장, 예술 축제 혹은 대중 행사

3. 뜻밖의 목적지!

지역사회 주변에서 어울리기에 멋진 장소를 알고 있는가? 어쩌면 여러분 지역에서 하이킹 코스나 문화회관

에서 즐기실 수 있다. 정기적인 모임을 하는 선교회, 하이킹, 걷기, 방문팀과 협력해서 놀랍거나 비밀스러운 곳으로 간다.

참가자가 도착하면 모두에게 페이스북 “체크인” 기능을 사용하고 함께 있는 그룹의 다른 회원에게 태그하도록 초대한다. 이렇게 하면 참가자들의 친구 목록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모임의 활동과 목적지가 전파된다.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서로의 “체크인” 및 그들이 얼마나 즐겨왔는지에 대해 댓글을 달 것이다.



이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이 생기고, 다음 모임에 참석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이미 체크인 포인트가 없는 하이킹 지역을 간다면, 단체 사진이 첨부된 체크인 포인트를 만든다.

4. 새로운 식의 찬송가 선정

대부분의 가을 동안 우리는 예배력에서 평상주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예배 안에서 실험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한주, 두주 혹은 한 달 동안 사람

들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음 주일에 부를 찬송가를 추천하도록 초대해본다.

사람들은 그들이 왜 그 찬송가를 좋아하는지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름으로 찬송가가 선택할 수 있다. 교인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알게 될 것이며, 어떤 찬송가가 선택됐는지 보기 위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볼 수도 있다. 매우 같은 사람들에게서만 찬송가를 선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5. 온라인 명상

이미 교회에서 예술가 동호회를 시작했을 수도 있다. 강림절이나 성경공부를 위한 목상을 만들도록 의뢰해본다. 예술 작품을 사진 찍거나 스캔해 교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명상 앨범으로 게시한다. 매일 또는 주마다 새 항목을 만든다.

이러한 모든 아이디어는 소셜미디어의 의사소통을 실제 삶의 경험을 전달하는 다음 단계로 이끌 수 있다. 사람들은 사실 페이스북 친구지만 실제로 삶을 절대 나눠보지 못한 교회의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정보화시대가 주는 GPS에서 벗어나야 한다!

(2면에서 계속)

윌리엄스는 이 문제에 대한 철학적이고찰을 위해 새로운 용어들을 만들어냈다. 윌리엄스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의 즉시성과 그 범위에 따라, 즉각적이고 좁은 범위의 주의산만을 핀 조명(spotlight), 핀 조명보다는 넓지만, 은근히 장기적 목표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별빛

(starlight), 그리고 사회 전체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일광(daylight)이라고 표현했다.

윌리엄스는 자유로운 담론을 즐겼던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Diogenes)를 이야기를 인용한다. 어느 날 디오게네스가 코린트의 햇살을 즐기고 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에게 와서, 그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까다로운 디오게네스는 왕에게 말한다.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 달라”

결국 윌리엄스는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술기업의 리더들이 더는 인류의 가치를 가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KAPC Reformed Presbyterian University & Seminary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2018학년도 가을 학기 학생 모집

1978년에 설립되어 현재 1300여명의 목사 회원과 30여개의 노회, 그리고 650여개의 지교회를 산하에 둔 미주 지역 최대의 한인 교단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교단 직영 신학교인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8학년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과정

1. 학사 과정 (B.B.S.): 고졸자
2. 목회학 석사 과정 (M.Div): 대졸자
3. 기독교교육학 석사 과정 (M.C.E): 대졸자
4. 편입생 과정: 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본 교단에 가입하기 위하여 편입하는 목회후보자
5. 편목 과정: 타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본 교단에 가입하기 원하는 목회자

- 원서 마감일: 2018년 9월 8일
- 제출서류: 입학원서, 신앙간증문, 추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특전

1. 본교의 M.Div 과정을 졸업한 학생에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에서 시행하는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안수받을 자격이 주어짐.
2. 각종 장학금 (성적, 근로, 총회 및 이사 장학금)을 지급함.

가을학기 개설 과목

Date (7-10pm)	Course # 과목번호	Course Name 과목명	Prof 담당교수
Monday (월)	BL-503	Greek (헬라어)	김동진교수
Tuesday (화)	OT-603	Prophetic Books (선지서)	안병권교수
Wednesday (수)	NT-703	Parables of Jesus (예수님의 비유)	최갑종교수

개강 영성 수련회

- 일시: 2018년 9월 4일 (화), 5일 (수) 오후 7시
- 장소: 신학교 채플
- 주강사: 안병권교수 (화), 최갑종교수 (수)
- * 문의처: 김동진학감 (626-675-8010)

박사 과정 안내

KAPC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은 California BPPE의 인가 (# 30693)와 California Education Code section 94874(e)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이 박사 과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 (1) 목회학 박사 과정 (Doctor of Ministry)
 - 입학 자격: 목회학석사 (M, Div) 학위를 소지한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단체 지도자
 - 졸업학점: 36학점 (논문 12학점 포함)
 - 학비: 학점당 150불

- (2) 신학 박사 과정 (Doctor of Theology)
 - 입학 자격: 목회학석사 (M, Div), 혹은 신학석사 (Th, M) 소유자
 - 전공 분야: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중에서 택일 (입학시)
 - 졸업학점: 48학점 (논문 12학점 포함)
 - 학비: 학점당 150불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직영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 이정현박사 이사장: 양수철박사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310-749-0577, 626-675-8010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스펠 하나의 차이(니케아 종교회의)

2012년 4월 영국 선덜랜드에서 열린 마라톤 폴코스 경기에서 결승선에 들어온 선수 중 1명 만 통과하고 나머지 5000여명이 실격 처리되는 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 사건의 시작은 1등과 크게 벌어져 달리던 2등의 선수가 지정된 코스를 벗어나 달렸다가 원래 코스로 돌아왔는데 자신이 잘못 달렸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뒤를 쫓던 나머지 모든 선수들이 모조리 잘못된 코스를 달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주최 측이 경로를 표시를 분명하게 하지 않은 이유도 있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2번째로 달리던 선수의 뒤를 맹목적으로 쫓아 갔다는 책임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아무 생각 없이 앞 사람의 등만 보고 달리던 5천명의 선수들은 전체거리 42.195km 중에 겨우 264m를 덜 달리게 됨으로 안타깝게도 모두 실격 처리되고 말았다.

이 경기에서 유일하게 정확한 경로로 달린 선수는 마크 후드로 우승을 거머쥔 선수이다. 세상의 운동경기에서도 이처럼 냉혹하다면 우리 앞에 있을 심판의 준거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국을 통일한 콘스탄틴 대제는 종교적 통일을 염원했다. 종교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하나로 단합될 수 있고,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은 곧 국가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니케아에서 AD 325년에 처음으로 종교 회의가 열렸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지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핍박 받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점들이 새롭게 부각되고 그것들이 화합을 방해하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동, 서방의 주교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으로 그 중에서 성부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동등성에 관한 의견이었다. 동방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정복되어 그의 후계자들이 300여 년 동안이나 지배하였기에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헬라의 철학을 통한 사고가 저들의 논리를 형성하였다. 플라톤의 철학은 최고의 신이 존재하고 그 보다 열등한 신으로 구성되었다는 논리이었다. 그리스의 신화 체계도 대동소이하고 파르티아의

신론도 비슷한 면이 있었다. 그러기에 영지주의가 득세하는 것은 그 당시 지역의 정서상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고로 동방 교회는 성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논리이었다.

히브리서서 1장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며,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구이니이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성자를 향해, 하나님이라고 하였고, 주(하나님)라고 하였다. 이것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불가능한 일이다. 오직 성령께서 감동하시어만 믿어지게 된다. 개인적 경험으로도 나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께서 찾아오시자 그 불가해한 사건이 분명한 진리로 이해되고 믿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만날 때 기도하기보다 자신의 지식이나 사고를 통해 알려고 한다. 세상의 소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소위 현명한 사람들 중에 빛나신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람들,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뱅, 파스칼,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은 잠재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에 결단로 가지 않을 수 있었다. 그에 비해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 같은 천재는 이신론을 믿었다. 이신론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뒷짐을 지고 창조하신 만물을 관망하시고 개입하시거나 돕지는 않으신다는 잘못된 신학이다.

콘스탄틴 대제가 다스렸을 때 동방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수용할 수가 없었다. 한 하나님께

서 세위가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절대로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성자하나님은 성부에게 나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나셨다고 하면서 동일하고 동등하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도출한 결론이 '아들은 아버지만 못하다'라는 것이었다. 그 논리가 동방에서는 수용하기가 수월했기 때문이다.

당시 동방에서는 쟁쟁한 학자들이 많았다.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도 성자는 성부와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부류이었다. 플라톤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고 또한 영지주의와 페르샤의 이원론에 젖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적 사상을 수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을 감지한 콘스탄틴 황제는 제1차 종교회의를 콘스탄티노폴에서 가까운 니케아에서 개최하였다. 그 때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를 보필하여 참석한 사람이 27살의 젊은 아타나시우스이었다. 그 회의에서 300여명의 주교들이 모였는데 세 부류로 서로 대립하였다. 아리우스파와 오리겐적 중도파, 그리고 아타나시우스를 위시한 정통파였다.

아리우스파의 주도자는 니코메디아의 주교 유세비우스로 아들은 아버지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오리겐적 중간파인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는 아버지와 아들이 유사(Homoiouios)하다고 했다. 정통파는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를 위시하여 서방의 대표들로 아들은 아버지와 동본질(Homoousios)이라고 주장했다. 스펠하나(i) 차이였으나 이 싸움은 테오도시우스가 황제가 확정 지을 때까지 지속되

었다. 학식이 풍부하고 잘생기고 연변이 뛰어난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는 당시 여론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부하나님과 성자하나님의 차별성을 노래로 만들어 가르쳤고 모든 사람들에게 습관적으로 입에서 입으로 동요처럼 불리게 하였다.

이 회의는 아리우스파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우세하였다. 이유는 절대적으로 많은 성직자들이 참석하였고, 또한 당대 최고의 학자로 명성이 대단한 사람으로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가 후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의는 항상 다수결에 의해 논쟁이 마무리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

회의의 장 여론이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으로 기울어지고 있을 때, 애송이에 불과한 27살의 주교의 비서로 따르던 아타나시우스가 마치 엘리오살의 아들 비스하스(민25:7-8)처럼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일어났다. 그리고 외쳤다. "아니오, 호모이 우시우스가 아니라 호모우시우스"입니다. 그 한 사람의 외침은 마치 천둥치는 소리처럼 좌중을 압도하고 말았다. 그 말에 의의를 달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회의장에 임재하였기 때문이다.

아타나시우스에 대한 역사학자 기본은 이렇게 언급하였다. "그의 학식은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에 비해 훨씬 뛰 뛰어났고, 그 촘스런 음성은 그레고리우스나 바실리우스(카파도기아 신학자들)의 세련된 연설에 비할 바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아타나시우스를 붙잡아 사용하셨다. 참으로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다.

만일 이 회의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질이 아니라

고 결정된다면 전 교회가, 아니 전 성도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개입하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에 개입해서 결정적인 때 물줄기를 바르게 돌려놓으신다. 영국의 역사가 칸의 주장이다. 개인적으로 친하게 교체하는 동방의 주교들의 사상을 콘스탄틴 대제가 따르지 않은 것도 성령의 역사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

회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한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homoousios)이라는 선언을 공의회가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를 어기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문구에 참석한 모든 회원들에게 서명하게 하였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결의하였다. 단어 하나의 작은 차이, 그것은 성자 하나님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었기에 아타나시우스와 서방 교회에서는 목숨을 걸고 주장하였고 또 양보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성령께서 동조하여주셨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강점기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신사참배에 관한 것이었다. 신사참배의 사이렌이 울릴 때 모든 사람들이 신사가 있을 남산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에 대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마음으로는 주님께 고개를 숙였다고 했다. 그에 비해 소수의 사람들은 고개만 숙이면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차도 거부하다가 옥에 갇히고 모든 고난을 당해야 했다.

진리에 대한 지극히 작은 것, 그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주님의 희생을 통해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말이다. 당신은 과연 이 사실에 동의할 수 있는가?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미국에 살던 인디언들 가운데 대단히 강한 부족으로 아파치라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에게는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추장직은 세습되지 않는다는 전통입니다. 누구든지 그 부족 가운데 가장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언제나 추장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니다.

한 번은 어느 추장이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앞두고 되었습니다. 추장직에 오르고 싶어 하는 여러 사람들이 후보자로 나섭니다. 말타기, 창던지기, 활쏘기 등의 시험을 거쳐서 세 명의 최종 후보자가 선정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마지막 시험이 벌어집니다. 추장은 세 사람에게 멀리 바라보이는 산꼭대기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저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내려와라 그리고 내려올 때는 너희가 정성까지 올라갔다는 증표를 하나씩 가져오도록 해라!" 대단히 가파르고 험한 산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오직 추장이 되겠다는 열념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한 사람씩 자신이 산꼭대기에 갔다가 왔다는 증표를 보냅니다.

첫째 사람이 특별한 풀을 내보이며 말합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산 정상에만 있는 이런 특별한 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둘째 사람은 손에 돌맹이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산꼭대기에는 이렇게 매끈매끈한 돌맹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사람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장은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아니, 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증표를 하나 가져오라는 내 말을 듣지 못했느냐?"

셋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분명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저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마을의 반대 방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강물이 흐르고 주변의 땅은 너무나 비옥해 보였습니다.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 부족의 거주지를 즉시 그곳으로 옮

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저의 증표입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이 사람이 결국 추장이 됩니다. 미래를 마음에 품은 이 추장은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고난을 견디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고난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당하는 고난은 마지못해서 당

할 때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견디는 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고 너무 뭐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니까 당신도 해야 한다고 말하면 서로가 힘들습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도 쉬운데 어떤 사람에게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제

에 책가방을 메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누군가 등 뒤에 있는 책가방을 들어 올려주고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연약해 질 때 우리와 함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문제를 만날 때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디기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나

야 할 일인 줄 알지만 하지 못하거나 잘못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고단하면 마음으로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해야 하지만 못합니다. 심신이 괴로우면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분한 일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울도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이나 기도했지만 고침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돈 벌고 출세하면 다 좋은 줄 알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영혼이 병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라"(27절).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과 성령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계획한 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며, 자신이 생각한 바가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과 같다는 마음의 교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중심에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기도에 응답이 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초점이 자신의 욕구, 갈망, 간구의 응답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 뜻, 내 욕구, 갈망, 간구의 성취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중심에 초점을 두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한 성도가 조각배를 타고 넓은 강 하류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배가 바위틈에 걸려서 빠져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노를 저으며 빠져 나오려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이 불어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인생 길 앞에 힘들고 험한 바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위를 없애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바위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동행 하시며 우리가 힘들고 지쳐 넘어지고, 답답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과 더불어 인생의 파도를 극복으로 바꾸어 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로마서 8장 26-27절)

하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8절로 25절에서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바라보면서 영광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래의 영광이 오기까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장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기까지는 기다리며 진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통이 너무 심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말합니다. 26절 상반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가 부족하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딪치는 고난을 감당하지 못

을 도와주시는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바울은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성령이 도와주시는지 기도의 예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첫째,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누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입니다. 우리가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이처럼 도와주시는 분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무거운 책가방을 등에 메고 가는데 갑자기 가벼워집니다. 등

를 도와주시는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바울은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성령이 도와주시는지 기도의 예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첫째,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26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숨이 끊어지게 돼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

우리는 때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또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은 어떻게 하시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 다시 말해서 무언의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몸부림을 치며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은 이때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도록 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가 진실 된 기도가 되도록 성령 스스로 탄식하시며 또한 우리를 탄식의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

신앙생활에 별로 열심히 없음을 핑계할 때 사용되는 가장 빈도수 높은 표현이 무엇인가? '먹고 살기에 바쁘고 힘들다'는 것이다. 주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친히 당부하실 정도로, 세상은 먹고사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생각이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게 만들고, 저들의 운명과 습관도 거기에 짜 맞추어지게 된다.

살든지 죽든지
크리스천조차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드러낸다. 신앙을 팔아서라도 세상의 욕심을 취하고자 한다. 늘 좋은 사람 같아 보여도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너무나 쉽게 돌아서는 것을 본다. 도대체 그가 가진 믿음은 돈 앞에서

준과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오직 그의 영광받음'이라는 신앙의 고백이다. 세상이 말하는 살고 죽는 것조차도 단지 삶의 상황과 조건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바울과 같이 이러한 의식과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가운데서 외부 조건에 의해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인생을 경이롭게 된다.

바울에게는 살고 죽을 뿐 아니라 삶의 질과 같은 고난이 찾아오거나 정반대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찾아와도 그에게는 아무런 상관 없이 보인다.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면 그것은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성공이요, 그 어떤 성공을

하는 것이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주님이 정해주시는 성일을 사회적 봉사를 위해서 폐하는 것이다. 이유는 한 가지, 세상이 좋아하고 박수친다는 것이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그날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임을 생각해야 함에도 목회적 성공을 기대하는 탓인지, 세상이 원하는 것을 성경을 넘어서라도 가까이 시행하는 것을 본다. 그 정도의 대형 교회도 쉽게 전염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한다.

물론, 예전에도 그 목사가 교회 내에 휴연실을 설치하면서 불신자

주일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이러한 행편과 여건을 돌아보아 주일이 아닌 다른 평일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정을 했다. 주변의 목사님들이 이를 말렸지만, 기어코 성도들의 원함을 기준으로 일을 시행하였다.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인가? 3년 만에 그 교회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두렵고 두려운 일이다.

타락의 스펙트럼
그래서 누군가가 신문을 통해 질문을 했다. 너희 교단은 왜 성경과 다르게 하는 일을 방관하느냐? 돌아온 답은 '우리 교단은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스펙트럼이 아주 넓다'는 것이다. 스펙트럼이 넓어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

-변화와 변질, 성장과 타락

는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빈 조각이 엉터리 믿음이었다 말인가? 그의 입술의 고백은 어디까지 그 진실을 믿어야 한단 말인가? 고민하고 기도해보지만, 결국은 한 가지 답에 귀착된다. 실제 그의 인생의 핵심가치는 세상이지 주님이 아니었던 것이다. 흉내 내는 신앙, 처세술로 주님을 섬기는 척 했을 뿐이다.

잡된 신앙은 세상이 말하는 삶이라는 것. 즉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목표를 가지는 것이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라고 말하지만 백번 천번 입장을 바꾸어도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영광'에 비켜가는 일은 생각할 수 없다. 인생의 연약함이 있지 않느냐고, 계속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기준과 원칙을 정해두고 자세를 분명히 하며 배우게 되는 '변화의 성장'과 기준 없이 세상에 맞추어가는 '변질의 타락'은 전혀 궤를 같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삶의 기준에 대해서 성경은 바울을 통해 증거한다. 그의 삶의 기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면, 실패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 바울이었다.

한마디로 어떤 순간에도, 그는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자신의 처한 곳이 차가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며 기뻐하며, 주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자기처럼 주안에서 기뻐하라고 강권하였던 것이다. 비록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잘 견디고 참음으로 인해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으로 자신은 만족한 성공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생의 기준자체가 자신과 세상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인생의 뱀 같은 지혜
오늘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원하는 생각을 성경을 넘어서라도 성취하려는 시도를 목격한다. 최근 서울 분당의 꽤 이름이 알려진 교회가 '토요일예배'를 실시하면서 교인들을 주일에는 지역 사회와 봉사 현장으로 적극 파송하는 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주일의 의미와 해석을 전혀 달리

들의 편의를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본다면 놀랄 일이 아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의 구별됨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그 인식이 놀라울 따름이다. 그의 기준이 지극히 세속적임을 판단한다. 물론, 세상을 향해 열려진 그 사상으로 인해 이전보다 사람들이 더 찾을 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과연 그 결정을 잘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

목회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가 속한 교단자체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든다. 좋은 목사들도 참 많은데, 한 인생의 뱀 같은 지혜로 말미암아 전체가 욕 들을 일이 생긴 것이다. 물론, 세상은 자신의 생각의 높이에 교회가 맞추어주니 얼마나 마음이 일치하며 환영하겠는가? 그러나 생각해보아야 한다. 인생이 교회와 말씀의 진리에 맞추는 것이, 인생의 행편과 처지에 교회가 맞추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의 파수를 보장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과거 뉴욕의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주일이 되면 맨해튼의 관광 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야 하니

서 어느 한쪽에서는 이단 사설 같은 말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신비주의로 흘러도 자신들은 모든 것을 용납하고 관용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음주, 흡연, 동성애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로움과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러한 이들과 대화를 하고 교단의 일을 감담함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 교단에서나 이런 문제로 묻고 들을 일이지, 작금의 미국 교단들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보면 질문자체가 무의미한 것을 느끼게 된다. 어떻게 목사님도 남자 사모님도 남자일 수가 있는나?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목사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런데 더 나아가 앞으로는 짐승과 인간의 혼인관계도 나올 법 하다고 하니, 종말이 정말 가까웠음을 느끼게 된다.

관용과 용납
성경의 진리에 삶의 다양함을 맞추어 정리,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교회를 삶의 다양함에 맞추어 해석하며, 자기 나름의 진리를 주장하는 아둔한 세상이 된 것이다. (11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현재 LA에 살다가 남편 따라 샌프란시스코에 이주하여 사는 모 교회의 권사입니다. 한인 이민자들이 처음에 하와이로 이주해 왔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초기 이민자들과 이민교회의 초창기의 역사를 알고 싶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장 권사

A: 미국의 청교도들은 1621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인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청교도들의 수는 102명이었습니다.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으로 지어진 것은 초기 청교도의 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민자들도 1903년 1월 13일 하와이의 노동 이민자로 계획호를 타고 처음 도착했습니다. 그 수 역시 102명이었습니다. 영국청교도의 숫자와 같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인 이민자들은 제2의 청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나섬영락교회를 시무했던 박희민 목사가 쓴 "이전보다 큰 영광"이란 설교집을 보면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상황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1903년부터 1905년까지 7000여명의 한인 노동자들이 하와이에 왔을 때 남자들만 왔기 때문에 결혼문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

1903년 하와이 노동이민 시작으로 독립운동에도 참여

음에는 중국여자나 일본여자도 결혼하기도 했는데 언어와 문화가 달라 거의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사진 신부(picture brides)"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남자들의 사진을 한국에 보내면 그 사진을 보고 신부가 되겠다고 여자들이 하와이로 와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한인 노동이민이 시작된 배후에는 그 당시 하와이는 일본인 노동자가 6만명이나 되어 그들이 노동을 독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잉이라도 하면 농장 주인이 품삯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노동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인 노동자들을 데려 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1905년까지 약 7000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들어왔습니다. 나중에는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 결국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한인 노동자들은 하루 67센트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일해서 일본이나 중국인보다 1970년대에는 한국계 미국인의 수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기 노동이민자들은 하와이에 온 사람들로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이민을 주선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민 오자마자 예배 처소를 만들고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경공부를 하며 친교를 나누고 향수를 달렸습니다. 그래서 한 때 하와이에는 무려 39개의 한인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1903년 11월 10일에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919년 3월1일을 기점으로 이민자들은 조국의 독립운동을 열심히 지원했는데 이때 박명만과 이승만 박사가 의형제를 맺고 국민회를 조직했고 이민자들은 1인당 5달러의 돈을 냈다고 합니다. 5달러씩 7000명이면 3만5천 달러인데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돈이었습니다. 박용만씨는 군인출신으로 무력으로 일본과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하자는 주장을 펴고 이승만 박사는 외교적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고 반대해서 결국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1920-30년대가 되자 하와이 농장을 떠나 캘리포니아 본토로 들어와 사는 사람이 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로스앤젤레스, 리버사이드, 엠파드, 샌프란시스코 등지에 정착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이민생활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은 이때 벌써 사법순이라는 사람을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초기의 교포사회 구성원은 노동자와 유학생이었습니다. 특히 1000여명이 되는 유학생들이 한인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과 소명을 가지고 선교에 헌신해 주실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선교지: Chiapas Mexico.
인원: 0명
사역내용: 신학교 사역, 개척된 교회 사역, 아동 사역.
자격: 보수 신학출신 목사.
언어: 스페니쉬 가능한분.
제출서류: 이력서(가족 소개 포함), 신학교 졸업 증명서, 목사 안수증 추천서, 선교 소명서, 기타.
제출기간: 2018년 11월 15일까지.
참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을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출처: WORLD ARK MISSION INC.
10541 Pinion Trail
Escondido, CA 92026 U.S.A
e-mail: Wam.chiapas@gmail.com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2018년 시카고 뉴라이프교회 장학생 모집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를 섬기는 예수의 사랑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립된 본 교회는 아래와 같이 제 17회 뉴라이프교회 장학생을 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응모자격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및 소수 민족으로써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며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춘자.
- 현재 신학교나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 또는
-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로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대학원과정은 최소 8학점, 학사과정은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GPA가 B이상이어야 함.

선발인원 15명: 각 \$1,500

제출서류 1. 신청서(본교의 소경양식) - 신청서는 본 교회 홈페이지(www.NLChicago.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앙 간증문 및 비전(2페이지 이하)
3. 추천서 2부. 담임목사, 지도목사 혹은 지도교수
4. 성적 증명서

응모마감 2018년 10월 31일
수여자 발표 2018년 12월 17일, 본 교회 홈페이지에서 발표됩니다.
신청서류 보낼곳 New Life Church of Chicago
Scholarship Committee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본 장학생 모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먼저 본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이메일(scholarship@nlchicago.org)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라이프교회 담임 장준원 목사
www.NLChicago.org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newlifechicago@yahoo.com
T.847-359-5200 F.847-359-8409

증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페니사크(PENESAK)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며 지금도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300여개의 뚜렷한 인종들이 있으며, 그들 대부분이 무슬림이다. 남동쪽 아시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많은 섬들은 호주, 유럽, 아시아 대륙 사이의 해로에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섬들은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연계해 있다.

인구 21,800명의 페니사크는 수마트라 섬의 남중양 쪽에 위치해 있으며, 이 지역의 주민 부족들 중의 하나인 코메링(Komerling) 부족과 매우 친밀하다. 역사적으로 페니사크는 아마도 무역과 선원생활을 하는 삶의 방법으로 수마트라에 확산되어온 보르네오 연안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의 문화는 수마트라인과 자바인과 시아메사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페니사크라 불리는 그들의 언어는 호주 언어 계열에서 온 하나의 언어다.

삶의 모습

인도네시아 문화는 많은 다양한 문화들이 혼합해 있다. 인도로부터 온 힌두사상과 불교사상은 인도네시아 삶에 강한 영향을 주었고, 이 나라의 건축과 조각품에 강한 인상을 남기고 떠났다. 인도네시아의 아라비아의 영향은 13세기 이래로 주로 이슬람의 가르침으로부터 발달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중국과 독일의 유입뿐만 아니라 폴라네시안 문화와 남동쪽 아시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육수수와 뿌리식물과 채소류와 쌀을 포함한다. 수마트라에서 수출을 위한 생선들은 섬유식품(모시, 케이폭, 사이잘삼), 고무, 담배, 차, 커피, 아자기름, 팜공, 후추, '코푸라'(아자열매를 말린 것), 빈랑나무열매 등이다. 산악지대에서는 또한 채소들이 자란다.

코메링처럼, 페니사크는 시골지

역 사람들로 50명에서 1000여명의 사람들이 한 마을에서 살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은 산림으로 덮여 있지만, 마을들은 연안과 강가와 도로를 따라 위치해 있다. 그들의 마을에서 페니사크는 4-8피트의 땅으로 올라온 죽마로 만든 집을 짓는다.

농업은 페니사크의 주민 직업이다. 고무는 주민 생산물이지만 커피와 벼농사 또한 잘 자라난다. 벼농사는 켈이질로 하거나, 황소나 물소에 의해 경작된다. 씨뿌리기와 추수는 일반적으로 대가족이나 남녀 상관하지 않고 고용된 일꾼들에 의해 일한다. 농부들은 종종 그들의 수확물을 재배하기 위해 트랙터를 사용한다. 그들은 수년 동안 그들의 수확물로부터 수입을 모아 정부로부터 트랙터를 살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으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한 이래로 주민

의식들이 추수 이후에 열린다. 이러한 행사들은 결혼과 할례와 종교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의식들이다. 마을에서 모든 가족들은 강한 공동체 의식 때문에 이러한 활동들에 참여한다.

페니사크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대가족으로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 대신에, 각 가족들은 그들 자신의 구별된 집들을 가지려 노력한다. 신혼부부는 잠시 동안 남자 혹은 여자의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지만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의 집을 갖기를 원한다.

여성들은 긴 면 블라우스 함께 사롱(몸 주변을 감싸는 길고 가는 천으로 만든 긴 스커트)을 입는다. 그들은 또한 바지와 재킷, 그리고 스카프를 한다. 그들은 베일을 가리지 않는다. 남성들은 서양식의 면 스커트와 느슨한 바지를 입는다.

신앙

종교의 자유는 인도네시아 의회법에 의해 보장됐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슬람은 나라의 주민 신앙이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다. 페니사크는 99%가 수니 무슬림들이며 오직 그들이 1%만이 그리스도인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페니사크는 그들 자신의 언어에 있어서 어떠한 기독교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현재 그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어떠한 선교단체도 없다. 페니사크를 위해 복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개척하는 선교사역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군 병영의 놀라운 부흥

미국 미주리주의 한 육군 병영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고 있다. 5개월만에 무려 1800명 이상의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다.



미 육군 군복 대령 호세 론돈(Jose Rondon) 대령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일이었던 지난 12일 하루에만 포트 레너드 우드(Fort Leonard Wood) 기지에서 380명의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서 "이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라고 말했다.

부흥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론돈 대령은 "지난 3월 11일 이후 만 5개월 동안 1839명의 군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적었다.

그는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력한 신념으로 이어지길 바랐다. 그는 "3번의 예배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준 토니 체크 목사에게 감사한다"면서 "기지 메인 채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부흥이 전 미국과 나아가 전 세계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론돈 대령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는 "길 잃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첫걸음을 내딛기 전에는 제자가 될 수 없다"면서 "예배당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론돈 대령은 아울러 자신의 페이스북에 병사들이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열창하는 영상이나 세례를 받는 영상 등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특히 세례를 받으려 나온 9명의 병사들에게 일일이 왜 세례를 받으려 하는지를 물었다. 한 병사는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지만 그것은 내 결정이 아니었다"면서 "이제 진심으로 구원자인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세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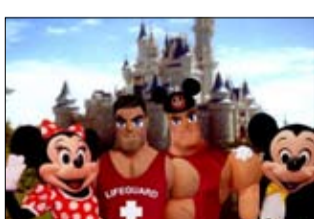
베네주엘라 출신으로 사우스이스턴 침례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론돈 대령은 25년간 사역을 해오면서 이렇게 부흥을 경험한 건 처음이라고 한다. 그는 기본 군사교육을 받는 군인들이 가족과 처음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종교적인 신념에 더욱 더 갈망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북미선교사회(North American Mission Board)에서 채플 담당 의장을 맡았던 두그 카버 예비역 소장은 침례신교와의 인터뷰를 통해 "포트 레너드 우드에서 일어나는 영적 부흥은 전 미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미군에서의 기독교 부흥을 달갑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다. 종교 분리의 원칙을 주장하는 단체인 군대종교자유재단(Military Religious Freedom Foundation)은 최근 미 공군 장관이 온라인으로 기도 블로그를 운영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상대로 이를 조사해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동성애자가 왜 나와?" 디즈니 가족영화

2019년 하반기 개봉 예정인 디즈니의 가족영화에 인물이 전면에 등장한다. 지금까지 디즈니가 어린이 TV애니메이션 등에서 동성애적 요소를 드러낸 적은 수차례 있었지만 이번처럼 동성애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우기는 처음이다.



미국의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 '데일리 와이어'는 최근 "내년 개봉하는 디즈니의 가족영화 '정글 크루즈(Jungle Cruise)'에 게이 캐릭터가 처음 선보인다"고 보도했다.

영화는 디즈니파크에 있는 같은 이름의 놀이기구를 토대로 제작됐다. 영화 '언더워터'의 메가폰을 잡았던 자우메 코예트세라가 감독을 맡았고, 드웨인 존슨과 에밀리 블런트가 각각 남녀 주인공인 '프랭크'와 '릴

리 하우튼' 역할로 출연한다.

데일리 와이어는 영화 속 여성 주인공의 남동생이 게이이며 영국의 코미디언 잭 화이트홀(30)이 배역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아울러 "동성애자 역할은 매우 재미있고 미적 스타일과 감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기독교계에서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동성애에 대한 반감이 극심했던 19세기를 배경으로 한 디즈니의 가족영화에 게이가 공공연히 등장한다면 동성애에 대한 전통적 가치가 자칫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화이트홀은 영화 출연 사실을 확인해주었지만 배역의 정확한 묘사는 아직 확인해 주지 않았다. 다만 이성애자인 화이트홀이 동성애 인물을 연기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즈니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7년 2월 미국에서 TV로 방영된 '프린세스 스타의 모험일기(Star vs The Forces of Evil)'에서는 감미로운 맨스푼의 노래에 맞춰 남성끼리 키스하는 화면이 두 차례 삽입됐다.

TV시트콤인 '찰리야 부탁해(Good Luck Charlie)'에는 레즈비언 커플이 나왔고, TV만화영화인 '괴짜가족 괴담일기(Gravity Falls)'에는 게이 커플이 등장했다. 같은 해 '미녀와 야수'의 리메이크 영화에서는 조연이 동성애를 암시해 논란이 일었다.

디즈니는 또 35년 동안 해마다 개최된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 '나이트 오브 조이'를 지난해를 끝으로 돌연 중단시켰다고 지난 5월 선언해 원성을 사기도 했다.

"그들은 아버지를 죽였지만..." 열살 이집트 소년의 꿈

부친이 이슬람 개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끔찍하게 살해당한 장면을 목격한 어린 아들은 이제 경찰이 되는 꿈을 꾸고 있다. 아버지처럼 박해를 당하는 크리스천을 보호하고 싶다는 것이다.



박해받는 크리스천들의 소식을 주로 전하는 '월드 워치모니터'는 20일 이슬람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아버지를 잃은 열 살 이집트 소년 미나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이집트 민야 지역에 사는 콥트교도인 미나는 지난해 5월 부친 및 친형 마르코(14)와 함께 남부 사막 지대를 지나가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습격을 받았다. 무장단체 대원들은 미나가 탄 차량 보다 앞에 있던 버스의 선교사들을 먼저 공격했다.

이들은 이슬람 개종을 거부한 이집트 콥트교도들을 모조리 살해했다. 28명의 콥트교도들이 숨졌고 25명이 다쳤다. 마르코는 무장단체 대원들이 콥트 교도들의 머리에 총을 쏘며 "알라후 아크바르(알라하는 위대하다)"를 외쳤다고 알려졌다.

마르코는 "한 무장단체 대원이 아버지와 사람들을 죽인 뒤 우리 형제마저 죽이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곁에 있던 다른 대원이 '개들은 살려줘. 우리가 한 일을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하잖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부친은 형 마르코의 손에서 숨을 거뒀다. 형제는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미나의 모친 한나는 "아이들이 축구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걸 좋아한다"면서 "점점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르코는 학교를 쉴 때면 아버지가 하던 교회 종을 만드는 일을 도맡아 한다. 형이 일을 하면 동생 미나는 엄마와 다른 두 명의 자매를 지키기 위해 집을 떠나지 않는다.

아버지를 잃은 충격으로 학업도 제대로 잇지 못했지만 마르코와 미나는 이제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 마르코는 엔지니어가, 미나는 경찰이 되고 싶어 한다. "경찰이 되면 크리스천들을 보호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당했던 것과 같은 공격을 막을 수도 있고요."

콥트는 이집트 기독교인을 가리킨다. 7세기 이집트가 이슬람화된 뒤에도 굴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지키며 세계 교회의 중요한 분파로 살아남았다. 현재 이

집트 인구의 20%가 콥트 기독교인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갖은 박해와 위협을 받고 있다.

"다 죽인다..." IS 만행에 이집트 크리스천 엑소더스

이집트 크리스천들이 죽음의 공포에 내몰리고 있다. 극단적인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공공연하게 살해 위협을 퍼붓고 있다.



실제 지난해부터 크리스천을 겨냥한 무차별 테러가 이어지면서 크리스천 거주지는 공포와 엑소더스의 혼란으로 가득하다.

전 세계 박해 받는 크리스천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 워치모니터'는 최근 북시나이 반도의 주도인 엘 아리시에서 지난해 2월 바가트 윌리엄 자크하트(40)가 괴한들에게 피살된 이후 크리스천을 겨냥한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엘 아리시는 원래 무슬림과 크리스천이 별다른 충돌 없이 지내던 곳이었다. 바가트의 아들 마르코스(17)는 "이 곳은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었다"면서 "우리 가족은 무슬림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냈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상황이 크게 변했다. 바가트의 아내 포지야는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모든 게 변했다"면서 "그들은 매우 엄격한 이슬람인들"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민자들은 크리스천들에게 도시를 떠나라는 내용의 전단지들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실제 살인 사건들이 일어났다.

바가트가 첫 번째 희생자였다. 주일 아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뒤 무슬림 친구와 함께 병원을 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복면을 한 두 명의 괴한들이 병원으로 들어온 뒤 바가트를 거리로 끌어냈다. 괴한들은 총부리를 바가트의 머리에 겨누고 이슬람 개종을 요구했다. 바가트가 거절하자 괴한들은 존경받는 수의사의 머리와 몸에 총을 쏘았다.

괴한들은 IS 대원들로 알려졌다. IS는 북시나이 반도에서 크리스천들을 몰아내기 위해 테러를 자행했다. IS는 지난해 2월 "이집트 콥트교도를 모조리 쓸어버리겠다"고 선언했고 크리스천들이 피살되는 사건이 빚발쳤다. 엘 아리시에서 탈출하는 크리스천들이 이어졌다.

콥트는 이집트 기독교인이다. 7세기 이집트가 이슬람화된 뒤에도 굴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지키며 세계 교회의 중요한 분파로 살아남았다. 현재 이집트 인구의 20%가 콥트 기독교인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갖은 박해와 위협을 받고 있다.

바가트 가족들도 엘 아리시에서 200km나 떨어진 곳으로 피신했다. 바가트의 아들 마르코스는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을 생각이다. 마르코스는 새 집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마지막 순간까지 신념을 지킨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하나님이 도운 일" 세 살 아이의 구조요청

세 살배기 어린이가 끔찍한 차 사고를 당한 뒤 밤새 풀숨을 헤멘 끝에 구조됐다. 아이는 엄마가 몰던 차량이 골짜기에 빠지는 사고가 나자 차에서 빠져나와 밖으로 튕겨나간 엄마를 깨우려했고, 엄마가 깨어나지 않자 차 안에 있는 한 살배기 동생을 위해 풀숨을 헤맸다. 형 덕분에 동생도 4일 만에 무사히 구조됐다. 경찰과 가족들은 두 아이의 생명이 하나님의 도움 없인 불가능한 기적 같은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26일 NBC와 KATV 보도 등에 따르면 세 살배기 카일런은 지난 17일 오전 7시50분쯤 아칸소주 캠프 소재 24번 고속도로에 진입한 한 삼점 근처에서 발견됐다.

여기저기 상처가 있었지만 아이는 비교적 건강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어린 아이가 왜 이런 곳에서 홀로 발견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실종 신고도 돼있지 않았다. 경찰은 아이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부모를 찾았다. 다행히 피해자 가족이 연락을 해왔다.

가족은 아이 이름이 카일런이며 아이의 엄마와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 수색 끝에 아이를 발견한 장소에서 300야드(약 274m) 떨어진 골짜기 아래 엄마 리사 홀리만(25)이 운전하던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에는 놀랍게도 카시트에 거꾸로 매달린 한 살배기 아이가 생존해 있었다. 카일런의 동생이었다. 아이들의 엄마는 안타깝게도 차량 밖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 살배기 아이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지만 탈진 증세가 있어 당분간 입원치료를 받게 된다.

경찰은 최소 4일 만에 둘째가 구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그 시간동안 어린 아이들이 무덤과 같은 고속도로 근처 수풀에서 오랜 시간 살아남은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놀라워했다.

오지타 카운티의 네이단 그릴리 수사관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부 아칸소주는 매우 무덤과 습한데 며칠 동안 세 살배기와 한 살배기 어린아이들이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라면서 "아이들이 살아남은 건 하나니의 축복"이라고 말했다.

경찰 당국은 카일런이 사고 직후 카시트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선루프를 통해 탈출한 뒤 동생의 구조요청을 하려고 여기저기 헤맨 것으로 추정했다.

리사의 아버지이자 카일런의 할아버지인 제임스 홀리만은 "카일런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나온 뒤 엄마를 깨우려 한 것 같다"면서 "끔찍한 일을 겪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가슴 아프다"고 울먹였다. 제임스는 또 "병원에서 리사가 흠뻑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우리는 2명의 가족을 잃었다"고 애통해했다.

리사의 여동생 시이라 홀리만은 "제 조카가 골짜기에서 기어 올라오는 걸 하나님도 도와주셨다"고 기뻐했다. 그러면서 리사가 평소 안전운전 했다면 사고 원인을 면밀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 보수 거목 '존 매케인' 지다

베트남전쟁 참전 용사이며 미국 정통 보수주의 거목인 존 매케인(사진) 상원의원이 25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81세.



매케인 의원은 이날 오후 4시28분 애리조나주 자택에서 아내 신디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고 의원이 밝혔다. 매케인 의원은 지난해 7월 악성 뇌종양의 일종인 '교모세포종' 판정을 받고 투병해 왔다. 하지만 병세가 건장할 수 없이 악화돼 지난 24일 본인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신디는 트위터에 "이 훌륭한 남성을 38년 동안 사랑하는 모험을 한 건 내게 행운이었다"면서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곳에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자기만의 방식대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매케인 의원은 1936년 미국령 파나마 코코솔로 해군기지에서 태어났다. 유서 깊은 해군 장교 집안 출신인 그는 해군 제독을 지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해군사관학교에 진학했다.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67년 해군 중장으로 복무하다 하노이 상공에서 격추돼 5년 동안 포로수용소에서 지냈다. 수형생활 중 아버지 존 매케인 주니어가 태평양사령관에 임명되자 북베트남 측이 선전 효과를 노리고 조기 석방을 제안했으나 매케인 의원은 "먼저 들어온 자가 먼저 나가는 법"이라며 거부했다.

매케인 의원은 82년 '전쟁 영웅' 이미지를 등에 업고 하원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87년에는 상원에 입성했고 내리 6선을 지냈다. 2000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 참가했으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게 졌다. 2008년 대선 때는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돼 Barack 오바마 전 대통령과 정면승부를 벌였으나 패배했다.

그는 상원 군사위원장으로 한반도 문제에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내년도 미국 국방정책과 국방예산의 근거가 된 '2019 국방수권법(NDAA)'의 공식 명칭은 '매케인 NDAA'이기도 하다.

매케인 의원은 같은 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최근까지 대립해 왔다. 매케인 의원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 일을 두고 "미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업적"이라고 비난했다.

13세기 유럽

중세 서유럽은 13세기를 중심으로 전과 후로 나누어진다. 13세기 초가 중세의 절정이었다. 그 전에는 최고를 향해 달려왔다면, 그 후로는 중세의 마지막을 향해 미끄러지기 시작하였다.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다.

이미 교권의 확립이 이뤄졌으나, 교회와 국가 사이의 힘겨루기가 지속되었다. 십자군 운동의 목적과 내용이 변질되면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의심을 받게 되었다. 도시 국가들이 생겨나면서 경제적 힘을 지닌 자들의 출현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교회 밖으로 쏠리게 되었다.

교회는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게 되었고, 성직자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정작 그들이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할 성도들은 그들의 관심 밖에 버려지게 되었다.

출세 길을 위해 직분을 얻은 세속적 성직자들은, 설교를 통하여 회중에게 신앙의 성숙을 고취시킬 영적 능력이 없었다. 예배에서 설교의 중요성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그 자리에 온갖 종교적 의식이 채워지게 되었다.

나아가서 11세기에 개혁 운동을 주도했던 클루니 수도원과 그 뒤를 따랐던 시토 수도원의 타락은 매우 치명적이었다. 출발시 지녔던 목적과 달리 많은 재산을 소유한 채 사치스런 삶을 선택하면서 스스로 타락의 길에 빠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교회는 권력과 부를 누렸지만,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상실한 채 안일주의에 빠지게 되었다. 교회 울타리 안의 일에 관심을 쏟다보니, 자연적으로 교회 밖의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된 것이다. 특히 사회의 구도 안에서 소외된 자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

탁발 수도사-유사점

이런 상황에서 13세기에 매우 신선한 개혁 운동이 시작되었다. 탁발 수도사들이 등장한 것이다. 탁발(托鉢, mendicancy)이란, 재산이나 소유를 포기하고 오직 거지처럼 구걸을 하여 생존을 하는 생활을 선택한 자들을 말한다. 그 당시 교회가 부패했던 원인이 풍부한 재산과 사치스런 생활이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안락을 추구하는 삶으로부터 뛰쳐나가 세상 안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빈곤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자들이 생겨났다.

이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수도회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명령과 반대로, 경건을 추구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공간 안에 안주하였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세상 안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과 함께 살을 나누는 것을 가장 중요한 덕으로 삼고, 그들을 직접 찾아가게 된 것이다.

탁발수도회를 창설한 두 명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1192-1226)와 스페인의 성 도미니크(1170-1221)이다. 두 사람은 동 시대의 인물로서 각자의 수도회

를 창설하였고, 이들의 사상은 유럽 전역과 그 이상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교회사가인 필립 샤프는 프란체스코회와 도미니크회가 공통적으로 지녔던 다섯 가지 중요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주어진 의무에 충실할 것을 서약한 평신도들이 모인 집단이었다. 수도회에 입단하는 것은 곧, 자신의 일상을 떠나는 것이라는 공식이 깨어진 것이다. 이로서 신앙 실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진 평신도들이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한 예고가 되기도 하였다.

두 인물 - 차이점

프란체스코는 부자집 아들로써 평생 넉넉히 살아갈 수 있던 재산을 지녔었다.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을 즐겼지만, 전쟁의

도로 자신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다. 한편 도미니크는 프란체스코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은 자였다. 그도 가난을 선택하여 구걸하며 살았으며, 헐벗은 자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그는 프란체스코의 성품과 기질과 매우 다른 면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그는 매우 냉철하였으며, 남달리 수도회의 조직과 교회 정치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지녔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조직한 수도회가 급한 속도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교회와 성직 제도를 위해 헌신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 후

13세기 중세 교회는 프란체스코와 도미니크라는 두 인물을 통하여, 이미지 쇄신과 함께 실제적인 개혁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들은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었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그들이 사망한 뒤가 문제였다.

결국 프란체스코회 안에 갈등이 생겼다. 그 원인은 교권을 지닌 교황이 그들 안에 너무 깊이 개입하였기 때문이다. 프란체스코회는 설립자의 사상, 심지어 유언으로 남긴 성격적 자유에 입각한 청빈과 복음 전파를 노골적으로 거부하게 되었다.

그들은 1223년에 교황으로부터 재가를 받은 엄숙한 규율을 우선으로 삼았다. 그 대신, 이들은 교황이 베푸는 모든 호의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변질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며, 설립자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 역시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나중에는 수도회가 분리되었으며, 교황의 힘을 받은 측에서 그러지 않은 자들을 탄압하고 순교의 자리로 끌고 가기도 하였다.

도미니크회는 설립자의 성향으로 인해 위험을 끌어안고 출발하였다. 결국 그가 죽은 뒤에는 '탁발 수도회'라는 모습을 감추고 근본적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었다. 향후 그들은 청빈 규율을 완전히 폐지하고 자율에 맡기게 되었다.

나아가서 1232년부터 그들이 종교재판소의 업무를 맡게 되어, 이단을 박멸하는 일을 위해 매우 잔인한 방법을 정당하게 사용함으로써 교회 역사에 오점을 남기기도 하였다. 결국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시작되면서 개신교 성도들 중에서도 이들에 의하여 많은 박해와 순교를 당한 수가 상당히 많았다.

13세기에 헤성처럼 나타났던 탁발 수도회의 개혁은 매우 신선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교황이란 절대 권력과 결탁을 한 결과 그의 시녀가 되었으며, 탁발 수도사들의 황포와 권력 남용으로 인하여 교회가 크게 망가지게 되었다.

진정한 교회의 개혁은 입술로 부르짖거나 행식을 갖추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방황해야 하며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 개혁에 대한 꿈을 소유하거나 실천하기 전에, 반드시 개혁자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개혁은 곧 삶이기 때문이다.

covenantcho@yahoo.com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18)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3세기 초부터 중세교회 내리막길... 신앙공동체로서 정체성 의심 출세길로 간 성직자들, 회중의 신앙성숙 고취시킬 영적능력 상실

첫째 특징은 절대 청빈이다. 프란체스코회가 먼저 실시하였고, 후에 도미니크회도 그들의 중심 강령으로 받아들였다. 가난한 삶을 서약하는 일이 수도사가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었다.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절대 가난을 외치며 몸소 실천하던 자들이 있었다. 주님을 따르려면 모든 재산을 포기하여야 하는데, 주어진 사명을 철저히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당시 13세기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네 번째 특징은 교육 활동이다. 이들은 대학교를 통한 교육이 지닌 영향력을 일찍부터 인식하였다. 프란체스코 자신은 학문의 중요성을 부정하였지만, 그의 계승자들이 교황으로부터 학교 설립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후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학 교육을 통해 로저 베이컨, 보나벤투라, 둔스 스코투스, 그리고 윌리엄 옥과 같은 학자들을 배출하기 시작하였다.

교육 활동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지닌 것은 도미니크회였다. 도미니크 자신이

포로가 된 뒤로 삶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그는 1209년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네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넣어두지 말아라."라는 음성을 들은 후, 이 말을 인생의 규율로 삼고 자신이 지녔던 모든 것을 포기하였다. 그 후로 그는 구걸하여 연명하였으며 누추한 곳에서 잠을 청하였으며, 맨발로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을

프란체스코-도미니크 탁발수도회, 절대청빈 등 5개 유사점 지녀 교황청 소속되고 설립자 죽자 다시 타락하며 황포와 권력 남용

가르침으로 절대 가난을 수용하는 것은 그 시대에 역행하고 뛰어 넘는 깊은 각성에서 기인된 것이었다.

두 번째 특징은 실천적 사회 참여였다. 그 당시 수도원은 개인의 사색과 명상을 통한 경건을 위한 곳으로 알려졌다. 즉, 세상과의 연결 고리가 끊어진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탁발 수도사들은 세상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자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과 역눌린 자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일을 함으로써, 세상과 소통의 길을 열어놓았다.

세 번째 특징은 평신도 형제화였다. 이 집단을 '제3수도회'라 부르는데, 자신들의 본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위한

일찍부터 학문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나아가서 노동을 연구와 설교로 대체한 최초 수도회가 되었으며,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아이스터 에크하르트, 그리고 요한 타울러 등의 학자들을 배출하였다. 유럽 주요 도시에 두 회에서 운영하는 대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한 뒤로, 유럽 사회에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다.

마지막 특징은 그들이 교황청에 직속되었다는 것이다. 도미니크회는 1216년에, 프란체스코는 1223년에 각각 교황의 승인을 받았다. 즉, 두 수도회에 속한 수도사들은 교황에게 충성을 맹세하였고, 교황은 그들의 후원 세력이 된 것이다. 처음에는 세상을 향해 뛰어 들었던 그들이었지만 항상 교권 확장에 대한 관심을 지녔던 교황과 손을 잡은 모습은 향후 큰 변화에 대

돌보는 일에 헌신하였다.

프란체스코는 운유한 성품을 지녔으며, 대중을 대할 때에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그에 대한 전설적 일화가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그가 새들에게 설교를 하였는데, 그의 말을 알아들은 새들이 감사의 표현과 함께 그를 바라보았다는 것이다. 또한 사나운 늑대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서 절대로 자신과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고 하니, 늑대도 그의 말을 알아듣고 그대로 하였다 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의 삶을 기록한 여러 자서전에는 그에 대한 칭찬과 존경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프란체스코는 가난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심지어 자신이 청빈과 결혼을 하였으며, 그녀가 자신의 신부, 어머니, 그리고 누이라고 천명할 정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4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4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8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임승쾌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 은혜받는 습관 (데이비드 마티스/생명의말씀사)
- 어머니 또 부르고 싶은 어머니 (한국문서출판/류태영 외 8명)
-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한홍/규장)
- 살피심 (김양재/두란노)
- 페이버 (하형목/청림)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독일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리부(시디나, 호주), 크리스천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 조이서적 213-380-8793 www.joyla.com
- 복음사 562-865-4949, 865-1919
- 도르가서점 714-636-7430



성경도 신앙(53) 교회와 국가

이윤석 목사 (NY 브루클린 제일교회)

3) 다음의 관점은 교회와 국가가 본질적으로 다르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런 관점을 주장하는 이들은 네 가지 중요한 이유를 제시한다.

(1)교회와 국가는 처음부터 그 기원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국가는 온 우주를 통괄적으로 통치하는 주권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께 지음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우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그런 범주에 속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국가를 존재케 하신 것이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롬13:1)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국민의 문제를 상관하지 않는다. 국가는 더 광범위하고 더 넓은 무엇이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성경에서 분명히 보듯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또는 구원하시는 행사의 직접적인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문제를 살펴보는 전통적인 방식이 되어 왔다. 국가는 자연 질서에 속하고, 그런 입장에서 우주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행사의 한 부분이지만, 반면에 교회의 경우는 은혜의 영역 안에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개혁주의 교사들 사이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자연과 은혜를 구분해서는 안되며, 그렇게 하면 이 문제를 매우 예리하게 살펴볼 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 대신에 그들은 은혜를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특별하고 독특한 은혜인 구원받게 하는 은혜와, 그들이 일반 은혜(common grace), 또는 보편적인 은혜로 부르는 것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은혜의 영역에 속해 있고, 국가는 자연의 영역에 속해 있다고 말하지 말고, 교회는 '특별은혜'의 영역에 속해 있고 국가는 일반은혜의 영역에 속해 있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은 중요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 그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다루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강조점이다. 또한 성경에서는 신자들이 하야금 주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은

사를 주시고, 거둬내게 하시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시키신다. 그것은 우리의 구속과 구원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여전히 보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작용하시어 그들에게 재능들과 기교들을 주심으로 그들을 다루신다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연적 때론다는 의미에서 '자연적인 것은 없다고 말하는데 관심을 가진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으며, 그 사람은 온전하였고 온 우주도 온전하였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함을 알게 된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하지만, 세상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아래 있다. 휴머니즘적인 세계관으로는 세계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세상은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이 그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작용의 결과라는 것을 모른다. 세상의 침몰이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 곧 교회와 국가가 그 기원에 있어서 온전하다 큰 것은 특별한혜가 있고 일반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교회와 국가가 각각 가장 우선하여 어떤 목적을 위해 제정되

교회와 국가가 본질적으로 다르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개념 개혁주의에서도 자연과 은혜 논란...특별은혜-일반은혜(쓰빙글리, 신정정치(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이 통치) 주장

새로운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 구분이 생긴 것이다.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라도 전적으로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다루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도 세상이나 인류 전체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제어하기 위해 권세들이 있게 하시고, 그 권세들을 통해 죄와 그 나라를 억제하신다. 이것이 바로 일반은혜의 한 부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궁극적인 목적에 있어서 은혜로운 방식으로 행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제어를 받고 있으며 성령의 감동 감화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점을 더 잘 표현하려면 은혜와 자연 사이의 대조에 대해 말하지 말고 특별은혜와 일반은혜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께서는 거둬내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의미에서 그들을 다루고 계시지는 않지만, 법과 질서와 평안과 통치와 그에 속한 문제들의 차원에서 그들을 다루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장을 잘 생각해보면 불수록 오늘날과 같은 세상을 재밌게 하는 것이 중요

했느냐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교회와 국가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교회는 영적인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과 전파하여 복음화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운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락을 위해서도 세워졌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제를 제공하고, 의로 교육하고, 성경을 풀어주고, 그들을 돕고 성례를 집행하는데 있다. 반면에 국가의 우선적인 기능은 더 광범위하다. 국가는 평화를 보존하고 의적인 선한 질서를 유지하는데 관련되어 있다. 영적인 목적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3)교회와 국가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위임한 권세가 다르며 구별된다는 점에 있다.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는 은혜의 권세이다. 교회는 강제적인 권세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 정반대의 입장을 가르치고 믿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안다. 동일한 오류를 범했던 다른 종류의 교회들도 있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권세는 설득과 은혜의 권세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루터는 로마 교회를 가리키면서 "사망선고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라

의 평정을 위해 말씀을 부리는 어떤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추방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음을 그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단을 물리적으로 벌하는 것을 반대했다. 루터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단을 잡아야 한다. 이 싸움은 칼로 해결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에서 사용되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판을 내지 않으면 그 결판은 세상적인 힘으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온 세상을 피투성리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렇다. 이단은 영혼의 문제이다. 그 어떤 강철도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 낼 수 없고, 아무리 많은 힘을 가져도 이단을 힘으로 제압할 수 없다. 다른 방식으로 물을 뿜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밖으로 뿜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이단을 멸할 수 있다."

이 설명은 교회의 권세는 은혜의 권세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통해 국가에게 위임된 권세가 본질적으로 강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가 칼을 공연히 가지지 아니하였으니"(13:4). 그래서 국가의 궁극적인 한계는 사형판결이다. 그러나 그 모든 노선을 거둬서 그 강제적인 권세가 응용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와 교회 사이에 명백한 구분이 있음을 본다.

4)국가의 기능들과 교회의 기능들은 그 수용방식에 있어서 매우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교회의 경우에 있어서 신앙성경에 그 기능들이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의 영역으로 나아간다면 행정관을 만나게 된다. 최고 행정부, 왕, 여왕, 황제, 그것이 누구인지 간에 나라를 통치하는 최고의 주권자를 만나게 된다. 그것은 전적으로 다른 질서이다. 여러 기능들과 기능을 수행하는 자들이 최고의 권위 아래서 일을 하고 있다. 이 질서 역시 구약 성경이나 신앙성경 모두에 분명하게 밝혀져 있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이 진리를 재발견하였고, 다시 포착하게 되었다. 그 진리는 콘스탄틴 대제 시대에 상실되었다. 그런데 그 진리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들에게 깨달아지게 되었고 본질적인 구분을 하게 된 것이다.

yoonsuklee@hotmail.com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시립대학교 교수)

부를 추구하는 인생

여름 방학 동안 한국에서 언니와 형부가 다녀가셨다. 형부가 알라스카에 가자고 하셔서 덕분에 한 번도 크루즈 여행을 가 본 적이 없었는데 크루즈와 랜드를 합한 열흘간의 여행을 다녀왔다. 처음 사흘을 배에서 지내고 넷째 날 하선한 곳은 스캐그웨이(Skagway)라는 작은 도시였다. 학교 다닐 때 역사적 사건의 연도와 지명을 외우는 것이 주었던 역사과목을 좋아하지 않았던 터라 새로운 도시에 가도 역사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편이다. 그런데 배에서 내려 둘러본 그 작은 도시는 마치 영화세트장 같은 목조 건물들이 늘어진 특이한 곳이었다.

방문객을 위한 센터에서 제공하는 도시 투어와 안내문을 읽으면서 1896-1899년 사이에 그 지역에서 있었던 금광 발굴 붐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었다. 학교 때 알라스카 지역의 골드러시(Gold Rush)에 대해서 배우기는 했지만 별로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이 없었는데 금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던 곳을 120년이 지난 후 방문하여 역사를 돌아보게 된 것이다.

알라스카 지역에서도 이곳저곳에서 골드러시가 있었지만 특별히 이번 여행 때 가본 곳은 캐나다 북서쪽에 있는 유콘 주의 클론다이크(Klondike) 골드러시 지역이었다. 1896년 클론다이크 지역의 광부가 처음 금을 발견했으나 요즈음처럼 인터넷이 없던 시대여서 한참 지나 신문을 통해 그 소식이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에 퍼졌고 그 이후 3년 간 10만 명의 사람들이 금을 찾아 몰려왔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배를 타고 스캐그웨이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 곳에서 금을 채굴할 클론다이크까지 가는 두 가지 경로가 다 험한 길이었다. 특히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가야 하는 화이트 패스 트레일(White Pass Trail)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추위와 험한 길에 죽어서 아예 그 길을 "죽은 말의 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아 가는 길에 추위와 질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아예 캐나다 정부에서는 한 사람이 일년치 식량을 메고 올라가야만 금을 캐러갈 수 있도록 통과시키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한다. 수많은 사람들과 말들이 무거운 짐을 메고 줄지어 산을 올라가는 사진이 진풍경이었다. 2년 후에는 기차 길을 만들어서 산을 올라가는 일이 훨씬 쉬워졌지만 기차 길을 만든 후 얼마 되지 않아 골드러시가 끝나는 바람에 이제는 관광 목적으로 기차를 운행하고 있었다.

금을 찾아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작 금을 발견하고 부자가 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에 시달려서 술이나 노름, 살롱 등 쾌락에 빠졌고 그나마 행운을 누리던 사람들도 계속 금을 찾는 일에 욕심을 내다가 죽음을 맞이하거나 알코올중독, 노름, 이혼 등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지는 못했다고 한다. 대부분 금을 찾아 온 사람들은 남자들이었지만 그 중에는 용감한 여성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시대 상황을 이용해서 지혜롭게 사업으로 성공한 여성도 있었다. 그 중 한 여성은 캐나다 의회의 두 번째 여성의원직에 임명되기도 했다고 한다. 금광주변을 따라 발달되었던 다슨(Dawson)이라는 도시도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에는 인구 500 명이 살던 작은 도시가 2년 만에 3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커졌었다는 데 이제는 관광객들을 위한 작은 호텔들, 식당 몇 개가 있는 옛날의 흔적만 남은 초라한 도시였다.

그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던 부는 무엇이었을까? 금으로 큰 부를 이루어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는 사람에 대한 기록은 읽을 수도 들을 수도 없었다. 그저 뜬 구름을 잡으려고 애쓰다 역사의 한 페이지 골드러시 시대에 주연, 조연 역할을 하고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라진 세상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현상에서도 부자가 되려는 꿈을 안고 왔다가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절망에 빠진 광부들을 위해 수고하며 삶을 드러 봉사하다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신부도 있었다. 그 길을 걸어 가다가 눈에 띄는 허름한 상점이 있어서 들어가 보았더니 그 신부님의 삶을 소개하는 짧은 글과 함께 영원을 추구했던 그분의 삶이 남아 있었다.

다우슨의 어느 빌딩 벽에 그 곳의 자연을 사랑해서 거주하며 시인의 삶을 산 로버트 서비스(Robert Service)라는 사람이 쓴 "유콘의 저주"라는 시의 서두를 읽으며 옛것을 위해 살도록 부르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했다. "나는 금을 위해서 금을 찾았다. 마치 노예처럼 땅을 긁고 파헤치며, 배고픔과 괴형병과 싸웠네. 내 젊음을 무덤에 던지며 금을 뒤흔고 마침내 나는 금을 찾았네. 드디어 지난 가을 행운을 찾았네. 그러나 인생은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며 금이 전부 아니라네."

lpyun@apu.edu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지역예배: 오후 7:30 Tel: (02)397-6754-5 군포시 금림동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r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화곡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5:00(매일)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2-8676(교육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오지동 1312번지 VIA DEI QUINTILI 32-00175 ROMA, ITALY	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5:00(매일)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기도: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www.seongsil.or.kr Tel: (02)2-950-3995,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43(142-073)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02)2-950-3995,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43(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4(404-270)	승동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 137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전 5:00(일-토) 새벽기도: 오전 5:00(일-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왕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새벽: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랑구 화곡동 172-29(잠실동)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동 49-45	안암 제일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02)926-4508 서울시 용마루구 역삼로25길 50-1 www.anamj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영로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후 5:00 금요기도회: 오후 9:30 Tel: (02)842-6881, Fax: (0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중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0-1(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새벽 5:3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천동 302-67 (140-031)



목회서신

이런 사람 찾습니다



박성규 목사 (주세우교회)

한국에 가면 경주 최부자집의 "300년 가문의 부의 비밀"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1)과거시험을 보되 진사이상 하지 말라(명예욕을 다스리라) (2)재산을 만석이상 모으지 말라(소유욕을 다스리라) (3)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4)흥년 기에는 땅을 사지 말라(어려운 시기를 이용하여 부를 쌓지 말라) (5)머느리들엔겐 시집은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근검절약이 몸에 배이게 하라) (6)사방 배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권력과

부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것을 보면 한 가문의 융성함이 절대로 그냥 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 사람이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지속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리라"(눅6:38)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성경은 섬기는 자를 "선하고 착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선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Goodness"입니다. "선한 성품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착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후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에 영향력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교회는 불같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로 인

한 부흥의 비결은 바로 섬기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착한 성품이 구제라는 섬김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 사도의 발 앞에 두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게 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 많은 땅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보고 그냥 둘 수 없어서 자기 땅을 모두 팔아 구제한 아름다운 부자였습니다. 마음에 긍휼을 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섬기는 인격이 안디옥교회의 체질이 되어 후에 팔레스틴과 예루살렘에 큰 흥년이 들었을 때 자기들도 어려워하면서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헌금을 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전달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만나 는 사람을 4종류로 나눈다고 합니

다. 1. 꽃과 같은 사람입니다-꽃은 피어서 예쁠 때는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고나면 돌아보는 이 하나 없듯이 자기 좋을 때만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2. 저울과 같은 사람입니다-저울은 무게를 달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대접을 하고 베풀더라도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하고 대접하는 사람입니다(흠리스 피플은 쥐도 돌아올게 없다). 3. 산과 같은 사람입니다-산이란 온갖 새와 짐승의 안식처이며, 멀리서 보거나 가까이서 보거나 변함없이 반겨줍니다. 나의 형편과 관계없이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반기는 사람입니다. 4. 땅과 같은 사람입니다-땅은 온갖 생명의 싹을 틔워 주고, 곡식을 길러내며 아무리 넘쳐나서 거름을 끼었어도 묵묵히 견디며 세월이 지나면 한결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안겨주는 사람입니다. 산과 같은 사람, 땅과 같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로 산과 같고 땅과 같이 섬기는 아

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섬기는 리더십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8절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바나바는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평신도였습니다. 산과 같고 땅과 같은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긍휼의 가슴을 가진 인격자로서 섬기는 리더십을 기르기에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안디옥교회를 부흥시키는 부흥의 불씨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바나바를 닮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부흥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뉴저지한인목사회 조직구성 출범

제 9회기 시무 감사예배 및 이 취임식



뉴저지목사회 9회기 회장 취임식 및 시무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저지 한인목사회(회장 김중윤 목사) 제 9회기 시무 감사예배 및 이 취임식이 8월 27일 오전 10시 뉴저지소망교회(담임 박상현 목사)에서 열렸다.

취임사를 통해 김중윤 회장은 회장으로 세움을 받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2:5)의 말씀으로 9회기를 시작했다"며, 스톨을 제작한 전임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예식을 가졌다.

김중윤 회장은 "어려운 이민목회를 하는 목사들을 잘 섬기며, 목회에 유익이 되는 사업을 최선을 다해 제공하겠다"는 각오와 사명을 담은 스톨"이라며 "이 스톨은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색,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희망과 성결과 생명을 상징하는 초록색으로 구성돼 있는데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아래서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성결되게 성장해 나가는 9회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뉴저지의 한인 교회 수가 250여교회가 넘는데도 가입한 목사회원이 70명밖에 되지 않는다. 목사회에 가입해 함께 기쁨을 나누며 성장해 나가자"고 부탁했다.

한편 제 9회기를 섬길 뉴저지목사회의 임원 및 실행위원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교단. △회장 김중윤(RCA) △부회장 유병우(AG) △총무 김주현(SBC) △서기 김동권(KECA) △부서기 정인식(KMC) △회계 송호민(RCA) △목회분과 김영훈(AG) △교육분과 이준규(PCUSA) △체육분과 김태수(KMC) △음악분과 이정환(FG) △전교분과 양혜진(YCA). 또 총회에서 선출한 △감사로 이병준 목사와 김경문 목사가 있다.

1부 예배는 유병우 목사 인도로 기도 김동권 목사, 성경봉독 양혜진 목사, 특송 뉴저지모찬양단, 설교 윤병호 목사(뉴저지교협 회장), 봉헌기도 송호민 목사, 축도 박근재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뉴저지교협 회장 윤병호 목사는 "본 받고 본 되자"(고전11:1)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교협은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며 목사회는 어머니와 같으며, 부부가 함께 잘 살아야 아름다운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게 된다"며, 교협과 목사회가 상호보완해서 따뜻하고 밝고 아름다운 뉴저지 교계를 만들어가자고 부탁했다.

윤 목사는 또 "사랑다운 사람이 돼야 하지만 특히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것은 늘 큰 도전"이라며 "목사는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늘 본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다. 목사다운 목사가 되기 위해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2부 이취임식은 김주현 목사 사회로, 이임사 박근재 목사(직전 회장), 임무스톨 인계, 취임사 김중윤 목사(회장), 직전 회장에게 공로패 증정, 신입원 인사, 권면 정창수 목사(뉴저지은퇴목회자회 회장)와 양춘길 목사(경경회장), 축사 박태규 목사(뉴욕목사회 부회장), 축가 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 광고 김주현 목사(총무), 폐회기도 김태수 목사(음악분과)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직전 회장 박근재 목사는 이임사를 통해 기뻐함을 잘 다져놓은 선배 회장들과 헌신적으로 사역을 담당해준 8회기 임실행위원들에게 감사사를 돌리고 "잘 하려고, 착하게 하려고, 충성스럽게 하려고 노력했다"며 "9회기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취임식에서 김중윤 회장은 축가를 부른 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을 지휘했으며, 순서에는 없었지만 윤석래 장로(뉴저지장로연합회 회장)가 축사를 했다. 이어 김영훈 목사(목회분과)의 오찬기도 후 식사와 친교가 진행됐다.

(정리: 유원정 기자)



미주예성 제3회 미국서남지방회 정기지방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있다

미국서남지방회장 오병익 목사 선임 제 3회 예성미주총회 정기 지방회

예성미주총회 미국서남지방회는 지난 8월 6일 남가주밴델교회(담임 오병익 목사)에서 제 3회 미국서남지방회 정기 지방회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가졌다.

제 3회를 맞는 미국서남지방회는 지난 2016년 제14차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총회에서 서부지역에 또 한 개의 지방회를 신설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이뤄졌으며 현재 15개의

교회와 선교회, 1000여명의 성도, 그리고 30여명의 교역자들이 소속돼 있다.

특히 이번 정기 지방회에서는 교회개혁과 멕시코 선교지원, 연합사역과 신학교 설립에 따른 목회자양성 등 진지하고 중요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으며, 성경복음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서남지방회의 신입 임원으로서는 △지방회장에 오병익 목사(남가주밴델교회) △부회장에 박용덕 목사(남가주벧내리교회) △장로 부회장으로 김규진 장로(남가주밴델교회) △서기에 강양규 목사(남가주새언약교회) △회계에 최낙현 목사(세계복음선교회) △부서기에 강정운 목사(올리브트리이프교회) △부회계에 양홍규 목사(굿프렌즈교회)가 각각 선출됐다.

▲문의: (213)434-1083 (기사제공: 예성미주총회 미국서부지방회)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은 오렌지카운티 재단 임시사무실에 버지니아 바건 부에나팍 시장을 초청 기도회와 부에나팍 지역에 관한 브리핑을 가졌다.

청소년 마약, 범죄 프로그램 협력 개발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부에나팍 시 공동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이 부에나팍 시와 공동으로 청소년 마약, 범죄 프로그램을 협력 개발한다.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회장 이우호 목사)은 지난 8월 21일 오렌지카운티 재단 임시사무실에 버지니아 바건 부에나팍 시장을 초청, 기도회를 열고 부에나팍 지역에 관한 브리핑을 들은 후 향후 한인들과 부에나팍 시의회와 협력해 청소년 마약, 범죄 프로그램을 공동

의 협력해 개발하기로 했다. 'Let's Talk with Mayor'란 제목으로 부에나팍 시와 거주 한인들의 참여와 발전을 위한 광범위한 대화를 나눈 이날, 개회기도 김동욱 목사, 환영사 조영구 의원(전 대한민국 국회의원), 그리고 시행정 브리핑에 버지니아 시장, 설교에 이우호 목사, 축사 김창호 목사, 축도 장순성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후로 목사는 왜 기독교인이 정치

에 참여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성경말씀을 인용해 설교했으며, 지난 8월 16일 주 캘리포니아 상원에서 25대11로 결정된 기독교 탄압 법안이 통과됨으로 성소수자나, 성전환자, 동성, 게이·레즈비언들에게 성적자나 상담전문가들이 상담을 하게 될 시 고소를 당하게 되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교인들이 알아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또 "미주한인교회들은 미국이 지난 320년간 기독교국가로 공립학교에서 성경과 기도를 가르쳐왔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미국이 다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국가로 되돌아가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한반도에 관한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책에 관해 조영구 의원이 발표했다.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은 부에나팍 시장의 긍정적 답변에 따라 함께 마약, 범죄방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해 경찰서장과 시의원들을 초청,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추가로 한인목회자나 교회,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기사제공: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미국 영적회복위해 뭉친다!

American Renewal Project...샌디에고, OC서 행사

미국의 영적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단체들이 모여 American Renewal Project를 구상하고 샌디에고와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행사를 갖는다.

이 프로젝트는 이 땅의 건국 선조들이 닦아 놓은 영적 원천을 널리 알리고자 구상된 프로젝트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닌 동참인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신앙인들의 자유의 기초석이 되는 믿음과 도덕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구

성했다. 샌디에고와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각각 1박2일 동안 열리게 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의 역사, 정부 및 교회의 역할과 세계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 인물과 사건들에 대한 분석과 그리스도인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에 필요성을 강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뛰고 있는 사역자들의 간증과 각 처에서 모인 사역자들과 교제의 시간도 마련된다.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적 세계관 정립을 위해 뛰고 있는 Tvnex(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 단체의 대표 김태우 목사와 사라김 사모(본지 필자)는 본 행사의 소식을 전하며, 한인목회자 부부들의 참여를 당부하고 특히 2세 사역자와 EM, 유스사역자(Youth Pastor)의 동참을 부탁했다. 단 본 행사는 영어로 진행되고 통역은 없다.

행사일정은 샌디에고 9월 13일(목)-14일(금) 파라다이스 포인트호텔(1404 Vacation Road, San Diego, CA 92109)이며 오렌지카운티는 9월 17일(월)-18일(화) 힐튼호텔(Costa Mesa 92626)이며 회비는 없다. 단 제한된 인원으로 인해 9월 7일까지 tvnext.org@gmail.com 으로 예약해야 한다.

그 외 자세한 것은 http://theamericanrenewalproject.org/2018/08/pastor-jimgarlow-invites-church-leaders-to-the-ca-renewal-project/ 에서 볼 수 있다.

(기사제공: 다음세대가치관정립&보호단체(Tvnex.org))



LA챔버콰이어 섬머콘서트가 글렌데일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LA챔버 콰이어 2018 섬머 콘서트 파라과이 김행용 선교사 후원콘서트로 열어

LA챔버 콰이어(지휘 이정욱) 2018 섬머 콘서트가 25일 오후 7시 글렌데일제일연합감리교회(담임 김 글래딩 목사)에서 열었다.

이정욱 지휘자는 "LA챔버콰이어의 섬머콘서트는 주로 선교사나 사역단체를 후원하기 위해 열려왔다"며 "작년 섬머콘서트는 장애아동들

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한미특수교육센터를 후원하는 콘서트로 열렸으며, 올해는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행용 선교사를 후원하기위해 열게 됐다. 복음전파에 힘쓰고 계신 분들과 단체들을 위한 음악회 열게 돼서 감사하고 이분들의 사역들을 위해 계속해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도하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음악회는 슈츠, 맨델스존, 슈베르트 작곡의 다양한 시편 찬양곡과, 가나스테라의 예레미야를 주제로 한국, 그리고 커슈너의 곡들을 연주했으며 '하나님의 사랑', '어호와의 꿈' 등 한국 찬양곡들을 불렀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교협 청소년센터 SAT 과정 개설

뉴욕교협(회장 이만호 목사) 산하 청소년센터(AYC, 사무총장 김준현 목사)가 2018년 가을학기 대학진학을 위한 SAT 과정을 개설한다. 강사진은 검증 받은 전문 교사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SAT공부, 그리고 예배와 멘토십을 리드한다. 공부 방식은 과목마다 개인별 레벨 테스트 후 반을 편성해 지도한다. 시간은 9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주간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상은 고등학생 10명 선착순. 수업료는 850달러(플러스에서 픽업할 때 50달러 추가).

▲문의: (718)279-1313 김준현 목사

뉴저지교협 정기총회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정기총회가 9월 27일(목) 오후 7시 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 우종현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201)461-5055

제 3차 4주 전인치유 리더집중교육

미주 한인노숙인 쉼터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이 진행하는 제 3차 4주 전인치유 리더집중교육이 9월 10일부터 10월 5일까지 포코노수양관에서 열린다. 뉴욕나눔의집은 중독(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자와 중독자 가족 방문상담, 전화상담, 문자상담, 이메일상담 및 방문상담을 하고 있으며 후원금은 모두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718)683-8884

뉴욕생명샘교회 헬라어 등 강의

뉴욕생명샘교회(담임 김영인 목사)가 9월 4일부터 헬라어와 히브리어 및 영어교실을 개설한다. 헬라어는 매주 목요일, 히브리어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8시30분까지 수업하며 수강료는 월 30달러. 강사는 김영인 목사, 조보영어(일, 금) 및 영어성경(수)은 오전 6시40분부터 8시까지, 강사는 조재석 전도사가 무료로 지도한다. 장소는 동교회가 새벽기도 하는 플러싱(35-01 150 PL 3층)이다.

▲문의: (718)749-8293

패밀리터치 시니어 프로그램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새 건물을 구입하고 9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시니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죽음준비학교: 오전 10시-12시, 점심식사 △행복교실: 오후 12시30분-2시30분. 수강료는 없다. 새 주소는 218 Main St. Little Ferry, NJ 07643.

▲문의: (201)242-4422



축복의 사워캠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다음세대 회복캠프...강의와 나눔, 기도... 2018 낮은올타리 축복의 사워 캠프 USA

낮은올타리 미주본부(대표간사: 조희창 목사)와 필라델피아 지부(지부 디렉터: 박가석 사모)가 주최한 N세대 회복캠프인 축복의 사워 캠프 USA가 지난 8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간 뉴저지 양지수양관에서 열렸다. 이번 캠프는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델라웨어 등 미주지역의 12개 교회 43명의 다음세대와 리더, 부모들이 참여해 뜨거운 은혜가운데 진행됐다.

강사로는 최미나 전도사(La Salle University교수, SET Ministry 대표)와 조희창 목사(뉴저지 한무리교회)가, 찬양인도는 유제니아 고 전도사(지구촌선교회)가 담당했다.

프로그램으로는 한영 이종언어로 진행되는 4개의 Teenz HMMS(자녀회복학교) 강의와 나눔과 기도의 시간, 회복을 주제로 한 팀별 영화 만들기 및 영화제, 영어권 2세 사역자들이 인도한 경배와 찬양과 저녁 리바이벌 등이 진행됐다.

캠프 디렉터 조희창 목사는 "다음세대 사역을 오랜 기간 해오면서, 다음세대들에게 수련회와 성경학교(VBS), 캠프 등이 영적으로나마 여러 가지면의 성장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해왔다"며 "그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때가 교회의 의견상 유스 그룹과 주일학교가 없거나, 인원이 많지 않아 수련회를

열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련회를 열고, 은혜의 장을 여는 것을 다음세대 사역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소명으로 여기고 몇해 전부터 매 여름마다, 여건이 될 때는 겨울방학 때도 캠프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이번 캠프 기간 동안 다음세대들이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하며 뜨겁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린 시간들, 특별로 영화 만들기를 통해 창의성을 발휘하며 하나 됐던 시간들 모두 참 소중한 2박3일이였다"며 앞으로 이러한 캠프와 사역을 통해 다음세대와 작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한편 이번 캠프 영화제에서 다음과 같은 영화를 상영했다.

- △"Leo et Agnus"(https://youtu.be/afR2u3hVgZQ)
- △"Godvengers"- (https://youtu.be/NaTAUYyuek)
- △"Plum Line TimeLine"(https://youtu.be/ff6TB4XDyV8)
- △"Basketball Player Lin"(https://youtu.be/YtO-RW41Gb)

사역문의: (646)300-4790, wooltarius@gmail.com (기사제공: 낮은올타리 미주본부)

KAPC 뉴욕노회, 서노회 2018 목회자 가족수양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노회와 뉴욕서노회가 지난 8월 20일부터 2018년 목회자 가족수양회를 열었다.

뉴욕노회

뉴욕노회 목회자수련회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간 필라델피아 Spruce Lake 수양관에서 열렸다. 14개 교회에서 29명이 참석했다.

이번 수련회는 새벽기도회와 저녁 예배시간에는 말씀으로 영적 충전을 얻고 낮 시간에는 철저한 쉼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영육 간의 재충전 시간을 갖는 모임으로 진행했다.

도착예배는 정기태 목사 인도로

기도 허윤준 목사, 설교 이윤석 목사("예배원형을 이루자", 계4:1-11), 축도 김성국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둘째 날 저녁예배는 홍준식 목사 인도로 기도 임영건 목사, 설교 문종은 목사("예수 안에 있을 때", 요 15:5-8), 축도 손한권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폐회예배는 이윤석 목사 인도로 기도 방정훈 목사, 설교 이영상 목사("목사의 능력", 눅18:1-14), 축도 이규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예배 찬양인도는 방정훈 목사가 맡았다.

또 새벽기도회는 둘째 날 임영건 목사 인도로 이종원 목사("모세의 사역을 통한 교훈", 민14:1-12)가 설교했으며 마지막 날은 임병순 목

사 인도로 이규본 목사("로렐나무 아래서", 왕상19:1-8)가 말씀을 전했다.

뉴욕서노회

지나해와 같은 장소인 뉴햄프셔에 있는 화이트마운틴에서 열린 뉴욕서노회 수양회는 24일까지 오전 오후 휴식, 그리고 밤 모닥불에서 교제 가운데서 8번의 새벽기도회와 저녁예배를 드리며 경건의 끈을 놓지 않았다.

예배는 노회원 목사들이 돌아가며 순서를 맡았다. 새벽기도회는 유기천, 이승원, 정관호, 이종태 목사가 인도했다. 4일간의 저녁예배는 찬양(오영상, 임일승, 사모팀), 사회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노회 목회자가족수련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서노회 목회자가족수련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바이올린반 어린이들이 바하의 미뉴엣 No.1을 연주하고 있다.

퀸즈장로교회 2018 서머 뮤직캠프 제3회 69명 참가...첼로, 바이올린 코러스까지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개최한 2018 서머 뮤직캠프가 마지막 날 오후 4시 연주회를 하고 마쳤다.

올해로 3회를 맞은 뮤직캠프는 합창 21명과 오케스트라 47명 등 총 69명의 학생들이 등록했으며 특별 강사를 포함한 12명의 교사들이 첼로, 바이올린, 오보에, 클라리넷, 플루트 등 악기와 코러스 반을 진행했다.

연주회에서 담임 김성국 목사는 다윗과 골리앗의 메시지를 전하며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연주회를 마치고 총평에서는 "유대인들이 2천년간 자신들의 땅을 잃었지만 다음세대는 바라보는 교사와 부모들의 노력으로 현재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고 세계를 지배할 능력을 가진 민족이 됐다"며 "오늘 교사와 부모들의 헌신으로 이 자리가 배움의 자리, 순종의 자리가 돼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뮤직캠프 총 담당자 최효진 권사는 음악 캠프의 목적에 대해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음악의 기초와 바른 자세를 익히며 음악과 더

친숙해지는 것"이라며 "오케스트라는 캠프 기간인 4일 동안 새로운 곡들을 잘 익히고 배워서 캠프 마지막 날 콘서트에서 완성된 곡을 연주하며 이를 통해 실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 "작년까지는 외부 유망 강사를 초청해 전체 캠프 기간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진행됐는데, 올해에는 좀 더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며, "합창은 세 분의 선생님이 작년 캠프의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하였고, 오케스트라는 콘서트 하루 전에 외부 지휘자를 초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는 기회를 가져 더 효과적으로 콘서트를 준비하고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연주회는 이정혜 권사 사회로 진행됐으며 후배들을 잘 지도한 중고등학생 교사 4명에게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어린이들은 각 악기로 연습한 곡을 연주했으며 마지막에는 퀸즈장로교회 중고등부 오케스트라에 이노스 1, 2와 함께 드보르작 신세계 교향곡을 연주해 참석한 부모들에게 기쁨을 안겨줬다.

(유원정 기자)



뉴욕실버선교회 제 27기 개강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8월 정기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과테말라 단기선교 6명 마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8월 정기예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유상열 목사)가 지난 27일 오전 10시 30분 빛과소금교회(담임 정순원 목사)에서 8월 정기예배를 드렸다. 이날 과테말라 단기선교 준비상황이 보고됐다.

회장 유상열 목사는 "선교는 기도가 필수"라며 과테말라 선교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오늘 설교 말씀처럼 선한 일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예배는 정순원 목사 인도로 기도 권금주 목사, 특송 안경순 김사라 목사, 설교 전희수 목사, 합심기도 박이스라엘 목사, 축도 유상열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전희수 목사(기쁨과영광교회 담임)는 "나는 성공한 사람인가?"(전 3:9-1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모두가 성공을 바라지만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가" 반문하고 "세상에서는 소유와 업적을 따지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려한다"며, "본문의 솔로몬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였지만 그의 인생말년에 실패한 자신의 인생을

쓴 것이 전도서다. 2장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해 아래서 헛수고였음을 고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진정한 성공자의 기준으로 '첫째, 기쁘고 보람 있는 삶의 과정(3:11) 둘째, 선을 행하는 것(3:12)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을 지켜 사람답게 사는 것(3:14)'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과테말라(장경선 박운영 선교사) 단기선교는 6명 참가자로 마감됐으며 일정은 10월 1-5일. 이번 선교 역시 후원아동 방문과 전도 집회가 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 후원하고 있는 화장실과 부뚜막 사역이 계속된다.

동 기구는 이를 위해 후원금을 모금 중에 있으며 또 현지 아동선물 외에 스태프에게 T-셔츠를 후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9월 월례회는 26일(수) 오전 10시30분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후반전 우승자로 완주하는 시니어!" 뉴욕실버선교회 제 27기 개강예배

뉴욕실버선교회(회장 김재열 목사)가 운영하는 뉴욕실버선교회 제27기 개강예배가 8월 27일 오후 8시 천구교회(담임 빈상석 목사)에서 열렸다.

실버선교회 회장 김재열 목사는 한국사회가 65세 이상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최근 뉴스를 소개하고 "나이가 들면서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다. 15년 전에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뉴욕의 시니어들을 위한 선교를 해야겠다고 해서 시작한 것이 뉴욕실버선교회다. 실버선교회는 전반전보다 후반전에 우승자를 만들어 낸다. 남은 생애를 헌신하라. 거룩한 부르심에 자원되어 달려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개강예배는 김재열 목사 인도로 기도 이지용 목사, 특송 김영환 전도사, 설교 빈상석 목사, 헌금특송 소피아송 전도사와 김봉규 목사, 헌금기도 이재봉 목사, 환영사 김재열 목사, 축무 필그림선교부유단, 인사 최남종 장로, 광고 장충현 장로, 축도 최윤섭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진 오리엔테이션은 사무처장 장충현 장로의 인도로 진행됐다.

빈상석 목사는 "달려가노라"(빌 3:13-14)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바울이 달려간다고 할 때는 지금도 달려가는데 미래에도 달려간다는 것이다.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예화로 1992 바

르셀로나 올림픽에서 400미터 준결승전에서 영국에서 촉망받는 흑인 선수였던 데릭 레드먼드의 완주를 소개했다.

빈 목사는 "우리들의 관심은 등수에 있지 끝까지 한다는데 관심이 없다"고 경고하고 마지막을 잘 마치지 못한 많은 이스라엘 왕들을 소개하며, "끝까지 완주해 마지막에 박수를 받는 시니어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무처장 장충현 장로가 뉴욕실버선교회를 소개했다.

실버선교회는 27일부터 매주 월요일 10주간 열린다. 오후 8시부터 2번의 강의가 진행되며, 지역교회 강사는 빈상석, 김재열, 최창성, 송병기, 박준영, 이재봉, 문덕영, 이지용, 양민석, 김성기, 김홍석, 최윤섭, 한재홍 목사다.

또 필요한 사람들은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선교지 사역후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미용, 안경, 사진, 헌금기도 이재봉 목사, 환영사 김재열 목사, 축무 필그림선교부유단, 인사 최남종 장로, 광고 장충현 장로, 축도 최윤섭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진 오리엔테이션은 사무처장 장충현 장로의 인도로 진행됐다.

26일까지 실버선교회를 받은 훈련생 중 13가정 22명이 현재 8개국에 파송돼 사역하고 있다. 실버선교회는 3주차까지 신입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훈련원장 김경열 목사(917-963-9356), 사무처장 장충현 장로(646-309-1787)에게 하면 된다.

(기사제공: 뉴욕실버선교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복음의 나팔 힘차게...” 나침반교회 설립20주년 감사예배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가 교회설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26일 주일예배 시간에 감사예배를 드렸다.

민경엽 목사는 “나침반교회가 오렌지카운티에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깃발을 흔들기 시작한지 벌써 20년이 됐다”며 “바람 앞에 촛불같이 흔들리던 그 어린 교회가 이제는 나름대로 성장하여 어느덧 청년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건실하게 자라온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을 넉넉하게 채우고도 남은 하나님 은혜가 임했기에 오늘이 있었다”며 “20년의 고개 마루에 서서 지나온 세월이 오직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듯이 또다시 나아갈 20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우리 모두 손을 모을 때다. 그래서 부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어야 하겠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이 있기까지 함께 사랑과 정성 헌신을 쏟으신 모든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에벤에셀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박종진 목사 사회로 열린 설립기념예배는 전준홍 장로가 기도했으며 최준희 집사가 성경봉독 했다. 이어 민경엽 목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행28:30, 31)라는 제목으로 말

씀을 선포했으며 20년간 교회를 위해 헌신해온 교우들에게 감사패를 증정, 교회설립기념 오형사 공모전 시상식, 20주년기념 동영상 소개, 그리고 종교단체 공연으로 이어졌다.

이날 예배는 유스오케스트라와 연합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민경엽 목사의 축도로 마쳤으며 이어 설립 축하 케이크 절단식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린 성막세미나에서 본교회 담임인 신승훈 목사가 강사로 나서 세미나를 인도하고있다

“성막은 성도의 신앙생활지침서” 주님의영광교회 성막세미나, 강사 신승훈 목사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가 주최한 성막세미나가 지난 25일 오전 10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본 교회 담임인 신승훈 목사가 강사로 나서 세미나를 인도했다.

신승훈 목사는 “성막은 ‘성스러운 거룩한 장막’이며 성막에 내용이 성경 66권중 50장에 걸쳐 할애되어 단일 주제로 가장 많은 장수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성막”이라 말했다.

신 목사는 “성막은 예수님, 교회, 성도의 모습이며 성도의 신앙생활

지침서이자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의 원리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며 “이번 성막세미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들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 목사는 “성막을 공부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된다”고 언급하고 “성막을 공부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며 헌신을 배우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나침반교회 창립20주년 감사예배에서 모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소망소사이어티 주최 제173차 소망교육세미나가 토론펬스제일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 173차 세미나 개최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의 173차 소망세미나가 19일 오전 11시 30분 토론펬스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 소망부(회장 진수길) 주관으로 토론펬스제일장로교회 엘리트카페에서 개최됐다.

소망부 소속의 회원을 비롯해 외부에서 참석한 참가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세미나는 시종일관 진지하게 진행됐다. 먼저 최경철 사무총장이 긴급연락처 카드와 소망 유언서 쓰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참석자들 가운데 자원자를 받아 상황극을 진행했고, 이어 김미혜 사무총장이 죽음준비 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전 의료 지시서를 포함한 소망 유언서 작성에 대해 강의했다.

이날 세미나를 마친 후에는 50명이 긴급연락처카드를 신청해 긴급연락처 카드의 중요성에 동참함을 보여줬다. 소망소사이어티에서는 교회, 기관, 단체 등의 찾아가는 세미나 요청을 받고 있다.

죽음준비, 치매예방, 웃음치료, 성공적 노후교육 등 아름다운 삶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교육에 동참을 원할 경우, 전화(562-9777-4580)나 혹은 이메일(somang@somangsociety.org)로 사무실로 연락하면 된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를 주제로 마무리 강의에 나선 유분자 이사장은 화해와 용서가 삶의 마무리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키워드인지를 실제 예를 들며 설명해 공감을 이끌어 냈다.

한편 세미나를 마친 후에는 50명이 긴급연락처카드를 신청해 긴급연락처 카드의 중요성에 동참함을 보여줬다. 소망소사이어티에서는 교회, 기관, 단체 등의 찾아가는 세미나 요청을 받고 있다.

죽음준비, 치매예방, 웃음치료, 성공적 노후교육 등 아름다운 삶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교육에 동참을 원할 경우, 전화(562-9777-4580)나 혹은 이메일(somang@somangsociety.org)로 사무실로 연락하면 된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LA한국교육원, 2018 하반기 소속 강사 연수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한국어, 한국문화, 성인교양문화 강좌 LA한국교육원, 2018 하반기 강사연수회 개최

LA한국교육원(원장 · 오승걸)은 지난 22일 오후 6시, 2018년 하반기 뿌리교육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성인대상 교양문화 강좌들을 강의할 예정인 소속 강사들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개최했다.

오승걸 LA한국교육원 원장은 미주 동포 학생들의 정체성 함양과 한국어 교육을 위해 그동안 헌신

한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하고, 새 학기도 학부모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했다.

2018년 하반기 뿌리교육은 8월 27일(월)부터 시작된다.

▲문의: (213)386-3112, 3113 (기사제공: LA총영사관)

서부교회게 게시판

기쁜우리교회 말씀잔치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말씀잔치가 9월 7일(금)부터 9일(주)까지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합3:2)'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강사는 임현수 목사(캐나다 큰빛교회 원로)이며 일정은 7일(금) 저녁 7시, 8일(토) 새벽 6시, 저녁 7시, 9일(주) 1-3부 예배, 저녁 6시다.

▲문의: (818)662-0400

개리채프만 박사 초청 가정사역 컨퍼런스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5가지 사랑의 언어'의 저자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의 비결을 전해주는 개리 채프만 박사를 초청해 교회설립 30주년 기념 가정사역 컨퍼런스를 9월 8일(토) 오전 9시에 개최한다.

▲문의: (714)772-7777

남가주주님의교회 설립기념 가을부흥회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김낙인 목사)는 교회설립 35주년 기념 가을부흥회를 8월 30일(목)부터 9월 2일(주)까지 '은혜 그리고 감사'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강사는 송기성 목사(정동제일교회)이며 일정은 30일(목) 저녁 7시30분, 31일(금) 새벽 5시30분, 저녁 7시30분, 9월 1일(토) 새벽 6시, 저녁 7시30분, 9월 2일(주) 1, 3부 예배

▲문의: (626)965-9191

오렌지한인교회 임현수 목사 초청집회

오렌지한인교회(담임 김윤진 목사)는 임현수 목사(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초청집회를 9월 4일(화)과 5일(수) 양일간 개최한다. 일정은 9월 4일(화) 저녁 7시30분 본 교회 친교실, 5일(수) 저녁 7시30분 본당이다.

▲문의: (714)871-8320

벤츄라카운티 감리교회 연합부흥성회

벤츄라카운티 감리교회 연합 부흥성회가 9월 7일(금)과 8일(토) 양일간 옥스나드 연합감리교회(담임 남재현 목사)에서 개최된다. 주님의교회, 벤츄라감리교회, 옥스나드 연합감리교회, 카마리오 연합감리교회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성회의 강사는 유강신 목사(한국 용인 대광감리교회)이며 일정은 7일(금) 오후 7시30분, 8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30분이다.

▲문의: (805)485-0100

충현선교교회 로마서 말씀세미나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는 로마서 말씀세미나를 9월 5일(수) 저녁 7시30분에 갖는다. 강사는 송병주 목사(선한정지교회 담임).

▲문의: (818)549-9191

LA연합감리교회 가을부흥회

LA연합감리교회(담임 이창민 목사) 가을 부흥회가 9월 7일(금)부터 9일(주)까지 개최된다. 강사는 황형택 목사(강북제일교회).

▲문의: (310)645-3699

(5면에서 계속)

관용과 용납은 귀한 단어이지만 진리 앞에서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말이다. 성경과 어긋나는 것은 분명히 타락이며, 회개를 통한 회복이 있을 뿐이지, 관점의 차이에 해당되는 스펙트럼을 말할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결국 지도자의 문제이다. 더 나아가면 목사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목사의 마음이 무엇일까? 교회와 목사의 분별한 관계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목사는 지도자이다. 그의 신앙과 결정과 진리를 따르는 순종이 곧

교회의 모습과 내용이 되는 것이다. 성경을 모르는 목사, 성경보다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취하는 목사, 나름 진취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하게 만든다.

목사는 성경이 말하는 지킬 것을 지키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진리 앞에는 관용과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진리를 세운 연후에 은혜를 말하고 은혜의 열매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은혜의 힘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davidnjon@yahoo.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금), 6:00(토) 영아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금 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토) laf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899, Fax: (323)913-4494 1750 W.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30 (청년)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 생기 도회: 오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6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00(영아) 주일 학교: 오전 10:00 영아예배: 오후 9:30 영아예배: 오후 5:30(월-금) 토요일한국교회: 오전 6:30 토요일한국교회: 오전 9:00 Tel: (626)691-0691, (F) (626)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949)854-4010 / E-mail: dd@kbc.org 1645 Beverly Blvd., #A Irvine, CA 90026 facebook.com/srcc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20 주일 2부 예배: 오전 9:2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후 9:20 영아예배: 오후 5:30(월-토) 금 요 예 배: 오후 7:3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www.kdrc.org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kdrc.org	디아스포라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젖어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 전역 팩스: 권영자 2333 Beverly Blvd., L.A., CA 9002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www.mpcia.org Tel: (213)381-9425, Fax: (213)381-2535 170 Bimlin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전통) 새벽기도회: 오후 5:45(월-금)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한국교회: 오후 9:00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성요한찬양예배: 오후 7:00 영아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d@kb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kbc.org	LA 복음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김효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아동부/청소년부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성령강화(목요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후 6:00 Tel: (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학부)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8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얼바인침례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금)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일성경기도회: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Fax: (949)857-9472 5101 Walnut St., Irvine, CA 92604	일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전통) 새벽기도회: 오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한국교회: 오후 9: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1200 W. Lambert Rd., #1 L.A., CA 90010
은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강화: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례기도회: 365일 24시간 www.gracemc.com Tel: (714)446-626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30(영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토) 성령강화: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min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주일 4부 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org	중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학교: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www.socalsamsungchurch.org / e-mail: pastor@laccornerstone.com Tel: (714)646-9259 Fax: (714)646-9284 16800 Imprimer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토) www.conerstonecv.com / e-mail: pastor@laccorner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2	토론펬스제일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아)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0:00 찬양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8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기독교대학 4곳, 정원·재정지원 감축대상 포함

‘대학 기본역량 진단’ 여파 신학대 구조조정 위기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다수의 신학대가 낮은 평점을 받았다. 이번 발표는 가안으로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이달 말 확정 발표된다. 이번 진단평가에서 아예 제외된 신학대도 많다.

교육부 등은 진단평가의 대상인 전국 대학을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3단계로 분류했다. 합격점으로 분류되는 자율개선대학은 내년부터 다음 평가가 있는 2021년까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 재정 지원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에서도 불이익이 없다. 기독교 계열 학교로는 성공회대 케이씨(KC)대 한국성서대 강남대 루터대 성결대 안양대 한세대 한신대 협성대 계명대 한동대 고신대 한남대 나사렛대 백석대 호서대가 이 유형에 안착했다.

역량강화대학부터는 제재가 불가피하다. 당장 정원을 최대 10%까지 줄여야 한다. 정부의 일반재정지원도 일부 제한된다.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다. 서울기독대 서울한영대(한영신학대) 목원대 등이 이 유형에 포함됐다. 큰 제재는 피했지만 합격점을 받은 건 아니다. 시급히 자취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몇몇 대학에선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다.

목원대 관계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보면 된다”면서 “자칫 방심하다가 재정 지원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유형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 고민이 크다”고 우려했다. 박우삼 서울기독대 기획관리처장은 “일부 지원이 제한되지만 학교가 주력하고 특성화 프로그램은 진행할 수 있고 재학생 수도 1000명 이하라 정원 감축도 없다”며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2015년 1차 평가 때보다는 결과가 좋아 이번 기회를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가장 낮은 단계인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두 단계(유형 I, II)로 나뉜다. 이 유형에 속한 대학은 모두 10개로 정부가 폐교를 유도할 수도 있다. 부산장신대가 '재정지원제한대학 II'에 속하면서 정원 감축과 향후 3년간 교육부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되는 징검타를 맞았다. 학생생이 있는 피해도 크다. 내년도 신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

당장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모집에서부터 타격이 예상된다. 부산장신대 김용관 총장은 26일 전화통화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 학교 구성원과 동문들에게 매우 송구하다”면서 “내년도 신입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전액 장학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학내 장학 기금을 활용하면 전액 장학금 지급이 무리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평가에서 아예 제외된 대학

도 있다. 다수의 신학대가 이 길을 택했다. 종교나 체육 등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은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신학대들의 경우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 대학'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졸업생 중 80% 이상만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에 부합해도 이 유형으로 분류된다.

감신대 광신대 대전신대 서울신대 서울장신대 아세아연합신대 영남신대 장로회신학대 총신대 침례신학대 칼빈대 한일장신대 호남신대 등이 여기에 해당됐다. 다만 이들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 등 정부 재정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학들은 '교회-대학 협력'이 오히려 대학 발전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장로회신학대 기획실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교회 협력사업'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돼 굳이 정부 지원을 받을 이유가 없고 교회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한 만큼 대학으로서 유리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일제히 열리는 장로교 총회에선 이번 평가 결과가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신학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단 산하 7개 신학대 중 부산장신대가 충격적인 평가 결과를 얻었다”면서 “신학대 동폐할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 주인의식을 갖고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임시이사 파송을 위한 다음 단계는 27일로 예정된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다. 사분위는 해임된 재단이사 15명을 대신할 임시이사 후보를 선정한 뒤 최종 선출하는 등 임명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총신대 운영이사(이사장 송귀옥 목사)는 지난 14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규칙을 개정하며 학교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13인으로 구성되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최초로 학생과 동문회 대표를 포함시켰고 총장 후보는 공개 채용기로 했다. 직전 운영이사장 강진상 목사는 “김 총장과 재단이사들이 깨끗하게 승복하고 총신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결단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단이사장 박재선 목사는 “(교육부 조치에) 아쉬움은 없다”며 “이른 시일 내에 이사들과 만나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단 전승할 수 있다. 성도들 역시 교회에서 제공한 설교 영상 등을 다른 성도들과 메신저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

합동 총회가 앱을 출시한 이후 24일 현재 약 160여개의 교회가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회와 개발사 퍼스트무버(이강복 대표)는 이후 목회자들을 위한 앱 사용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슬라이드를 넘길 때마다 재생되는 광고를 본 뒤 연는 포인트로 소속 교회나 미지립 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앱테크'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나 빵집, 미용실 등에서 일하는 여신도 중 서비스 때 안색이 좋지 않거나 음식 맛이 좋지 않으면 끌려가 타작마당을 당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범죄행위가 가능한 것은 신씨가 자신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세뇌시켜 놨기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박씨는 “그들은 피치 주민을 먹여 살리기도 힘든 좁은 땅에서 세계의 난민을 돌보고 신씨의 아들 김다니엘(본명 김정용)을 요셉처럼 총리로 만들어 정치·경제를 장악하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다”면서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지도부를 한국으로 송환해 모두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신옥주집단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 씨)은 비유물이 방식으로 종교사기를 쳐왔다”면서 “이번에 그 실체가 일부 드러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예장합동, 임원후보 등록과정서 논란

13년전 예장개혁총회 통합까지 비화

국내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전계현 목사)이 총회 임원 후보 등록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관련 논란이 13년 전 교단 통합을 결의한 예장개혁 총회와의 '합동정신 훼손'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은철 목사)가 부서기 후보로 입후보한 김용대(영광대 교회) 목사에 대해 지난달 '총대 경력 부족'을 이유로 서류를 반려하며 부터다. 선거위 측은 “부서기 출마를 위해 필요한 총대 경력이 7회인데 총회 전산망에는 김 목사의 경력이 6회로 등록돼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 목사는 “전산망에 2005년 교단 통합 이전의 구 개혁 총대 경력(2회)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선거위에 ‘후보 자격 결격 사유’와 관련한 이의신청서를 내고 재심을 요청했다. 이의신청서에는 교단 통합 당

시 작성된 '합동 원칙 합의서', 합동 후속처리위원회가 이듬해인 제91회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 등이 첨부됐다. 양 교단이 총회 임원, 총대, 노회 임원 등에 대한 역사성을 인정한다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선거위의 결정엔 변화가 없었다. 선거위는 지난 17일 전체 회의에서 김 목사의 ‘부서기 입후보에 관한 건’에 대해 등록서류와 발전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최종 결의했다. 소식이 알려지며 구 개혁 총회와 총대들이 다수 포진된 광주전남지역 노회장협의회(회장 정관술 목사)는 성명을 내고 “선거위의 판단은 구 개혁 총대 기록을 인정하지 않은 차별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 목사를 부서기 후보로 추대한 전남제일노회(노회장 강민수 목사)도 27일 임시회 소집을 공고하고 선거위 결정에 강력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전계현 총회장은 21일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진화에 나섰다. 전 총회장은 “제 103회 총회를 불과 20여일 앞둔 상

황에서 구 개혁 총대의 경력이 교단의 현안으로 떠오른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선거위가 양 교단 합동정신을 무시하고 일을 진행한다면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2년 제97회 총회에서 구 개혁 총대가 고시부장에 출마할 때 교단 통합 이전 총대 경력을 인정해 후보 자격을 부여한 바 있다”며 “선거위가 행정의 일관성을 지켜줄 것”을 주문했다.

이은철 목사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총회 회의를 앞 둔 상황에서 전 총회장의 담화문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이 같은 방식으로 선거위를 압박하는 것은 선거관리규정상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전 총회장이 주문한 ‘행정의 일관성 유지’에 대해서도 “해당 총대가 구 개혁 총대 경력을 인정받은 게 허위 사실”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 총회장은 “선거위원장이 임원회에 진정을 보내와 담화문 발표의 불법성을 지적했는데 총회장 입장에서 교단 통합의 역사성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선거위가 고유의 권한과 역할을 인지하고 지혜롭게 사안을 다루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AP 독소조항 폐지하라” ...초교파단체 뭉쳐 반대운동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대위’ 출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독소조항 폐지를 위한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국민비)가 출범했다. 국민비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교단장회와 전국17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등 기독교 연합 기관을 비롯해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등 500여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원평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은 27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그동안 수많은 국민이 NAP 내 독소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됐다”면서 “나쁜 인권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비를 창립했다”고 설명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젠더정책 확산 등 NAP에서 독소조항이 삭제될 때까지 순교적 각오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적을 높였다.

소강석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대표회장은 출범 메시지서 “미국과 서구 사회에선 잘못된 인권 때문에 다양한 사회·문화적 병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런데 한국사회는 여전히 일인지 남들이 버린 젠더 평등이라는 ‘페폼 스테이지’를 받아들여야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소 대표회장은 “남북이 언젠가 피 흘린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이룰 텐데, 훗날 북한 주민들이 NAP 독소조항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이나 해 보고 추진했다는 지 의문”이라면서 “NAP에 여러 문제가 있는 만큼 종교계가 하나 돼 독소조항을 반드시 수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자유와인 권원구소 박성제 변호사는 “NAP를 강행한 인사들은 술한 도덕적 문제가 있더라도 ‘인권’만 붙이면

모든 게 허용되는 줄 착각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기만해 국가정책을 만든 만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영준(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헌법개정 시도가 막히자 정부가 선택한 전략이 젠더 평등 인권 교육으로 국민정신을 개조하는 것이었다”면서 “종교 차별과 종교편향, 젠더 평등 등이 수록된 NAP의 ‘갈남’은 결국 한국교회를 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이날 “문제인정부가 국민정신을 규제·억압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반하는 사람을 차별로 낙인찍어 법적 처벌까지 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행태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로 지금은 잘못된 정책에 맞서 단호하게 싸울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비는 앞으로 NAP의 문제점을 알리는 설교 강연 및 현수막 게시, 전단 배포, 10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전개한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독소조항을 고발한다

(3) 동성애·종교 관련 교육 문제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기독교인의 종교 양심 사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기독교계 시민단체들은 곧바로 NAP 독소조항 개정운동에 착수했다. 4회에 걸쳐 NAP 독소조항이 가져올 폐해를 살펴본다.

문제인정부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만들며 실수한 것 중 하나는 사회적 합의조차 되지 않은 부적절한 용어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성소수자’와 ‘종교편향’이다. 범위조차 불분명한 성소수자는

부른다”면서 “이들을 마약소수자나 성소수자로 불러선 안 되는 것처럼 동성 간 성행위를 성소수자라 부르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정부는 NAP에서 성소수자 용어를 남발해 성도적 위반자나 성범죄자를 도덕·

시비 108억원을 투입해 짓는 전월산 불교포교시설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조언했다.

정부는 동성애를 천부인권에 포함시키는 오류도 범했다. 동성애 옹호·조장 측이 생각하는 인권에는 동성 간 성행위와 그에 따른 폐해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동성애 반대 측은 이를 인권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가짜 인권’으로 분류한다. 사회적 논란이 많지만 정부는 NAP에서 동성애를 인권의 하나로 포함시켰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부적절한 용어를 공무원, 경찰, 군장병 등의 교육에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교육을 통해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로 인정하고 선교활동을 중

정부, 동성애 인권교육·종교편향 방지역교육 계획...중립 지켜야 할 공무원들을 오도할 우려

동성애자가 사회적 피해자인 것처럼 은연중에 인식하게 만드는 전략적 용어다. 종교편향도 불교가 한국교회를 폄하할 목적으로 만든 용어다.

성소수자라는 용어는 동성애 논쟁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수자로, 부도덕한 동성 간 성행위자를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다. 실제로 동성애운동가인 한채운 한국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 대표는 “성소수자 용어는 동성애자 운동에 있어 전략적으로 선택한 용어”라며 “이것은 동성애가 도덕적 타락과 질의 일종이라는 싸움을 생략시켰다”고 실했다.

조영길(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는 “마약복용이나 근친상간자는 도덕·법률적으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불법 행위자로

법적으로 비난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종교차별, 종교편향도 마찬가지다. 불교는 이명박정부 시절 이들 용어를 사용해 기독교를 공격하고 종교의 자유를 대폭 위축시켰다. 이정훈 울산대 교수는 “종교차별과 종교편향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활동시절 한국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 낸 전술용어”라면서 “NAP에 삽입된 이들 용어가 공무원과 시민의 종교자유를 대폭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교편향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 만든 용어이지만 실제로는 불교에서 많이 발생했다. 이 교수는 “종교편향은 특정종교의 포교에 예산과 행정편의를 제공할 때 발생한다”면서 “사찰명을 역명에 넣은 불은사역, 190억원의 국고가 투입된 대한불교조계종 본부, 국비와

교차별로 보고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신평식 한국교회총연합 사무총장은 “NAP에 나오는 동성애 인권교육과 종교편향 방지역교육은 중립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해야하는 공무원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심지어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국어사전에도 집어넣을 계획이다. 사전이 바뀌면 사랑 결혼 연애 등 수백개의 관련 용어도 동시에 변경된다. 동성애가 보편적인 사랑인 양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엄기호 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은 “문제인정부가 반성경적인 정책에 왜 이렇게 발 벗고 나서는지 모르겠다”면서 “지금이라도 국무회의를 열어 NAP 내 독소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종교계 최초 교회관리 어플리케이션 출시

예장합동 총회, 한 어플로 교단 교회 온라인 운영 가능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는 20일 교단 내 모든 교회가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2개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종교계에서 교단 단위로 어플리케이션을 보급한 첫 번째 사례다.

합동 총회가 이번에 공개한 앱은 교회가 모바일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교회 어플리케이션’과 실시간으로 교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교회 슬라이드 어플케이

션’으로 나뉘어 있다. 총회 관계자는 “성도와 교회, 교단 사이의 더 많은 정보가 교환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며 “교단 내 교회라면 어느 곳이든 앱을 설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교회앱의 가장 큰 장점은 한 앱 안에서 모든 교회가 독립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목회자들은 교회 내 공지사항 등을 성도들의 홈페이지 잠금화면에 언

신옥주집단, 신도폭행 ‘타작마당’ 방영 후폭풍

지도부 구속·신도 구출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진행 중

SBS가 25일 방송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신옥주집단의 ‘타작마당’ 실제 영상을 공개해 후폭풍이 거세다. 신옥주씨가 신도들의 머리를 쥐고 흔들거나 뺨을 내리치고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게 하는 타작마당의 모습은 이들의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실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하지만 이들이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지목된 집단이라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정통교회인 것처럼 혼동할 수 있게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피지에서 2년간 머물다 지난해 탈출한 김성일(가명)씨는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된 타작마당은 신옥주집단 안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야

만적 일들이었다”면서 “한번 폭행하면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데, 지금도 신도들이 자기 의견을 펼치지 못하게 통제하고 억압하는 도구로 써먹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타작마당이라는 이름 아래 사돈 간에 서로 폭행을 하고 손자와 손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면서 “사악한 종교집단을 그대로 놔두면 자기들끼리 결속해 신도들을 ‘염전노예’처럼 평생 부려먹을 게 뻔하다. 한국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단기간에 조직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6년 피지에서 탈출한 박명숙(가명)씨도 “지금도 피지 내 식당이

교도소 선교칼럼 (49)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교도소 목사: 리처드 스미를

내가 처음 리처드를 만났을 때 그는 중범죄자 방에 있었고 법정 판결에 대해 힘들어 하고 있었다. 천천히 나는 그의 변화를 보았고 그는 재소자들 사이에서 리더로서 빛났다. 그러나 처음에 리처드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의 온몸에 새겨진 문신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갇힌에 속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백인을 제외한 모든 유색인들을 무시하고 폭행하는 갇힌에 속해 있었다. 비록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일지라도 얼굴과 몸의 문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고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그 얼굴에도 나타나게 된다. 리처드가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다.

리처드가 변화된 후에는 그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같은 방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갇힌이 리처드에게 백인이 아닌 다른 유색인들에게는 성경공부를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을 했고 그를 해치려고 무기까지 만들었다. 그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리처드는 계속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공부를 인도하며 하나님 일을 했다.

하루는 갇힌이 흑인들과 싸움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며 리처드에게 같이 싸울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똑같이 섬길 수 없어. 마귀와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어. 마귀의 일을 미워하는 거야. 나는 마귀의 일을 해칠 수 없어."

갇힌 중에 두 명이 그를 옹호하며 "리처드가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라고 말했다. 그래서 리처드는 싸움이 일어났을 때 자기 방에서 슬퍼하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한다. 그 뒤에 리처드를 해코지 하려고 기회를 노리던 사람들이 다른 방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는 안전하게 되었다.

리처드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 당시 중범죄자들은 오직 '분노역제' 클래스만 참석하게 되어 있었다. 개인적인 종교상담을 목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예배나 성경공부는 그들에게 제공되지 않았다. 내가 교도소 행정부에 중범죄자들도 예배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다. 언젠가 중범죄자 중에서 그것이 대해 항소하는 사람이 생겨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랐는데 마침 리처드를 만난 것이다.

"목사님, 중범죄자는 왜 예배를 볼 수 없

나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도 그 점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내게 없으니 프로그램 관리자인 폴러씨에게 편지를 써주세요. 편지를 보내기 전 내가 읽어 보면 좋겠어요."

그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용서가 필요하며 이제는 중범죄자들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아주 잘 썼어요. 이 편지를 폴러씨에게 보내고 면담을 요청해서 중범죄자들이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하세요." 놀랍게도 폴러씨는 리처드와 면담 후 오직 교도소 목사들만이 예배를 인도한다는 전제로 행정부에 허락을 구하는 서류를 신청해 주었다. 정식허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중 폴러씨를 만났다.

"리처드를 잘 지도했네요." "너무 오랫동안 그들이 예배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어. 중범죄자들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리처드는 나에게 다른 재소자들에게 이 문제에 관해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해 달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맘에는 과연 예배를 드릴 날이 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오히려 리처드가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예배를 드리는 접견실을 가리키며 말했다. "목사님, 다음 달부터 중범죄자들이 접견실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마침내 교도소에서 중범죄자들의 예배를 허락해 주었을 때, 나는 정말 벅찬 감동으로 리처드를 방문했다. "리처드, 당신은 목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어요. 정말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최고의 성인들은 절대 숨지 않는다" 책이 출판 되었을 때 리처드에게 자신의 간증부문을 예배시간에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읽고 있는 내내 그는 흐느끼고 있었다. 그의 간증은 눈물, 아픔, 고통과 믿음의 이야기였다.

리처드의 설교는 감동적이고 성경적이며 역사하셔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교도소에 있는 모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비전이 크네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교도소에서는 중범죄자들이 다른 재소자들과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문을 열어 주실 거예요."

어느 날 다른 갇힌의 재소자가 내게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리처드를 길거리에서

서부터 알았죠. 더 이상 그때의 리처드가 아니에요. 그는 완전히 변했어요. 그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 하는 것을 들으면 정말 큰 위로를 받습니다."

리처드가 말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어떤 면에서요?" "교도소 목사가 되고 싶어요. 어떤 훈련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재소자로서가 아니라 사역자로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당신은 이미 목사입니다. 나보다 더 많은 재소자들을 돕고 있어요." 사역자가 되길 원한다고 말하는 몇몇 사람을 만났지만 리처드는 내가 만났던 그 누구보다 진심이었다. 그는 직책만 없었을 뿐 24시간 재소자들을 돕고 있었다. 리처드가 교도소를 떠나기 전에 자신이 쓴 글 196 페이지를 주었다.

"목사님이 쓴 '예수님과 걷는 길'이라는 책을 읽고 은혜 받아서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간증문을 써왔습니다. 제 책도 언젠가는 출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변화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재소자들의 이야기를 엮어서 책을 내므로 그의 책만 출판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최고의 성인들은 용서한다"라는 작품을 집필하는 동안 하나님은 리처드의 이야기를 책에 넣으라고 말씀하셔서 그 간증은 간증문에서 일부를 발췌했다. 그의 이야기는 인생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삶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등대와도 같았다.

그의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로 자신의 아이들에게 수없이 폭행을 가했다고 한다. 어머니의 남자인 친구는 리처드의 어머니를 폭행했다. 어린 리처드가 어머니를 때리지 못하게 말리다가 리처드에게까지 폭행을 가하고는 한 구석에 앉혀놓고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구경하게 한 때도 있었다.

끝내는 리처드의 동생이 어머니의 남자인 친구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그 뒤 리처드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과 같이 마약을 하다가 끝내는 자기 아들을 버렸다. 그때부터 리처드는 노숙자가 되어 마약을 팔며 마약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리처드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에게 협박이 와도 무시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설교자가 되었다. 리처드는 항상 웃는 얼굴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너무 많이 보았어요"라고 말했다. 놀라운 하나님은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이다. yonghui.mcdonald@gmail.com

선교 펠리핀

필리핀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께 짙게 덮인 회색빛 구름, 초록 벌판, 한참 우기인 마을의 풍경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날씨가 많이 더워서 고생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이곳은 서늘하여(24-31도)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작년 12월 31일에 선교편지를 보낸 이후 지금까지 소식을 드리지 못해 많이 궁금해 하셨지요?

1. 임마누엘 국제학교 건축은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층 유치원 건물과 3층 교사 기숙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니다. 같은 교회에서 파송되신 정 희 선교사님 내외분께서 초등학교 운영을 맡



유치원 건물 교사 기숙사 건물

아 주십니다. 그리고 필리핀 선교사인 Flor Boniao 선교사가 유치원을 맡아서 디렉터로 수고해 주십니다. 임마누엘 학교 사역이 협력사역의 귀한 분이 되는 사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마을의 센터와 국제학교 사이에서 연락을 담당하는(liaison)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국제학교 staff



2. Vuthy(위티) 전도사가 7년간의 신학교 수업과 M.Div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6월 8일에 졸업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한 캄프 마을 센터를 맡아서 계속 사역을 할 예정

이고 공부마치고 마을로 돌아왔기에 약속대로 센터에서 기르던 소 한마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신실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개미산 마을 센터를 담당하는 소필(Sophal) 목사도 신실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소필 목사님 대화하다보면 아프고 가난한 성도들과 배움의 기회가 없는 어린이들에게 항상 마음이 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귀한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4. 소필 목사와 위티 전도사의 목회자 훈련(pastoral mentoring)을 같은 NLMA에서 파송되신 박승배 선교사

님께서 맡아 주셔서 한 달에 두 번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신도라서 감당할 수 없었던 목회자 훈련을 목사님이신 선교사님에게

서 담당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신학교에서 배운 것과 실제 목회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함께 나누며 교회를 섬기는 부분에서 많이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5. 필리핀 선교사이신 Milkie Boniao 선교사님이 국제학교 근처에 센터를 여는 일에 함께 참여하기로 하셨습니다. 현재 학교 근처에 있는 마을을 다녀보고 있습니다. 영어와 성경을 가르치며, 관계를 맺고 주일에 믿는 학생들이 모여서 교회 가 되는 센터 사역이

국제학교와 함께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한 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센터도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4면으로 계속)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h3>				<h4>뉴욕갯세미네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 찬양: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p> <p>Tel: (516)520-2004, nygodspc@yahoo.com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www.nygetsemane.org</p>	<h4>뉴욕몽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 찬양: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5</p> <p>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www.nyaskyng.org</p>	
<h4>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성경공부: 오전 10:00(화,토)</p> <p>Tel: (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kccb.org</p>	<h4>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재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h4>뉴욕새벽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ee@yahoo.com</p>	<h4>뉴욕새생명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준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637-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겸음),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p> <p>http://www.cpcof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4>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h4> <p>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p> <p>Tel: (718)7406-7577, (718)938-1777 188-12 73 Ave., Fresh Meadows, NY 11366 www.nyantioch.org</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 찬양예배: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ville, NY 11361</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찬양예배: 오후 8:0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4>주비전교회</h4> <p>담임목사: 이규분 주일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금요찬양회: 오후 5:00 영양예배: 오후 1:00</p> <p>Tel: (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t, NY 11030</p>	<h4>켄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org</p>	<h4>퀸즈한인교회</h4>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p> <p>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h4>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www.pccv.org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병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4>브라질 새소망교회</h4> <p>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5:00 주일별예배: 오후 7:00</p> <p>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6-PARRAI-8A PAULO-SP-BRASIL</p>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최광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종교개혁 기념: 아침 7:40 영.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전 7:30</p> <p>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4>하와이 행복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4>멕시코 선교본부 교회</h4> <p>선교사: 임한근 목사 멕시코 번식 신학교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6:00 (1, 2부 새벽기도회 생략)</p> <p>Tel: (52)333-3507-4111 E-mail: haninrk@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ajara MEX(멕시코)</p>

탄자니아 어린이들 그림, 뉴욕에서 전시

유경옥 선교사 미술선교 후 전시회 합류

수곡미술선교회 회장 유경옥 선교사가 지난 8월 2일부터 열흘간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그 옆의 섬 잔지바르(Zanzibar)에서 미술선교를 하고 돌아와 뉴욕 맨해튼에서 전시회(8월 23-29일, K&P 갤러리, 929-888-6335)를 가졌다.

전시회에는 유경옥 선교사와 선교에 동행한 권효빈 화가의 작품과 탄자니아 킨더가튼 어린이 42명의 작품이 전시됐다. 전시회 수익금 전액은 탄자니아 어린이들에게 전달된다.

유 선교사는 "이 어린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 그림이 맨해튼 첼시의 갤러리에 전시된바 있고 또, 판매돼 자신에게 혜택을 돌아온 것을 기억한다면 보다 원대한 꿈을 갖고 눈을 세계로 돌려 큰 생각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선교사의 이번 탄자니아 방문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사흘간 플러싱 천 갤러리에서 가진 전시회의 수익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됐다. 이 수익금은 이번 방문시 현지 이진용 선교사에게 전달됐다.

유 선교사는 "이번 탄자니아 미술선교에서 벽화와 티칭, 그림성경

읽어주기, 설교, 가정사역 등 땀 흘린 일정으로 힘들었지만 특히 아프리카가 동서양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륙이 될 것을 기대하며 한국에 복음과 함께 문명의 혜택을



전해준 청교도의 후예인 영국, 미국, 캐나다 선교사들의 노고를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유경옥 선교사는 이번 뉴욕 전시회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아이들 작품은 손수건 염색그림이나 종이 그림이나 모두 20달러, 유경옥 선교사와 권효빈 선생의 작품은 모두 소품으로 100달러에 판매된다.

▲연락처: sookokart@gmail.com,

(13면에서 계속)

6. 지난 몇 년 동안의 사역기간 중 최대의 위기를 겪으며 지나느라 녹초가 되어 편지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0년 전 마을로 들어오면서 한 가지 각오했던 것은 예수님도, 사도바울도 배신한 제자가 있었으니, 나도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니 실망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10년 동안 함께 사역했던 사란선생을 센터에서 내보냈습니다. 많이 참고 기도하고 귀중한 시간이 오래였지만 크리스천 리더로서 흠결이 크고 학생들에게 분이 되지 않기에 아프지만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란선생을 따라 5명의 센터 학생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현재 센터엔 3명이 남아있습니다. 함께 하던 동생 요셉 선교사도 7월 달에 안식기간으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역했다고 생각했는데, 주위에서 도와주던 사람들이 떠나고 나니 실상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여 이 사역을 해왔다는 깨달음, 나의 경험과 능력으로 아이들이 모이고 센터를 이끌어왔고 내가 결정했던 것이 다 옳다는 교만함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게 되고, 그동안 사역이 커져가기만 했었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이 없었기에 충격과 회개의 기간을 거치며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밖



엔 할 수 없었습니다. 찬송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기도부탁하려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그동안 매일매일 생기는 일을 해결하느라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했던 결과였습니다. 평안할 땐 기도하지 않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영망인 내적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아파 하실까 부끄러웠습니다.

저보다 더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도전은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이런 영망이고 속물인 나 자신인 것,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는 복음.

첫사람을 회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라-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모든 사람이 보석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누구

인지 모르지만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믿었던 학생들이 떠나고, 아무리 전해도 끄떡하지 않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지쳐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 힘든 시기를 겪으며 목상했던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대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과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아름이 잡개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속될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이 찬양이 저의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다시금 여러분의 기도를 떠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조 에스더 선교사 올림.

선교 편지



니카라과가 여전히 아름답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 니카라과 선교사들 뉴욕방문 시 배풀어주신 사랑과 섬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니카라과의 어려운 상황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6팀의 단기팀과의 사역이 니카라과 정국 불안으로 모두 취소되고 그 어떤 사역지도 갈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이르러서 20가정의 선교사들이 니카라과를 떠나 한국과 미국에 머물렀습니다. 저희 내외도 지난 6월 21일 7가정의 선교사들과 뉴욕으로 가서 함께 매일 기도회를 갖고 지내다 7월 25일 니카라과로 귀임하였습니다.

지난 4월 18일 2007년 5,800만 불 잃어 자금을 보유했던 연금공단이 정부의 무분별한 운용으로 인하여 지난해에는 8,000만불의 적자를 내었습니다. 그 책임을 지고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현 연금 수혜자들의 연금 삭감과 기업, 현 근로자에게 그 부담을 지우려는 연금법 개정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는 계속 되어 급기야는 그동안 폭정에 억눌려 왔던 시민들의 정권 퇴진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이에 맞서 무력 진압으로 평화적 시위대에 무차별 총격으로 맞대응하여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5월 30일은 니카라과 어머니날입니다. 경찰의 무력 진압으로 희생된 자녀들의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많은 시민, 학생들의 평화적 시위대를 상대로 경찰이 조준 사격을 가해 당일 모두 18명이 살해당하는 참사에 이어서 현재까지 모두 450명 이상 살해되고 2,830 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사태가 장기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 사주로 반정부 방송국을 불태우고 방화 약탈이 심해져서 시위대가 자구책으로 도로마다 바리케이트를 쳐서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시위 중심지이자 저 사역 중심지인 마사야에만 100개의 바리케이트가 세워지고 모든 은행, 상점들이 문을 닫는 등 통행은 물론 안전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 또한 사무실과 개척한 17개 교회는 물론 저희 집에서 양방향 모두 바리케이트가 쳐져 아무데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7월 말 니카라과로 돌아와 보니 모든 물가가 상승했고 8만명

니카라과

이상이 실직하였으며 그나마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은 경찰의 추격과 체포를 피해 특히 마사야에 젊은이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일단 주소가 마사야인 젊은이들은 어디에서든 경찰이 무조건 연행하고 집집마다 가택 수색할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표식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던 미국인 선교사의 책임국이 거절되었고, 다

부분을 메울 길이 없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하반기에 계획했던 모든 사역을 취소한 상황입니다.

야간에는 통행이 거의 없는 마치 20여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마저 드는 울퉁불퉁하고 컴컴한 거리가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속히 니카라과가 안정을 찾아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는 9월 15일(토) 그라나다 대성당 앞 광장에서 전도대회가 열립니다. 내년 우리 뉴욕노회 주관으로 2월 22일과 23일 거행될 까라소 전도대회가 상차 받은 심



른 미국 선교사는 불법 연행을 피해 도주하여 당일로 출국하였습니다. 유럽 선교사들의 영주권은 취소되었고 차를 타고 이동하던 미국인이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한인들도 많게는 10발에서 한두 발 차에 총격을 받았지만 감사하게도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소식은 제가 코디네이터를 맡아서 레옹에 경기중앙교회 선교비로 세워진 중앙교회도 약탈을 당해 벽과 지붕을 제외한 음향시설, 전선, 형광등, 의자 등 하나도 남김없이 싸늘해 갔다고 박우석 선교사가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붕을 안 뜯어가서 다행이라고 한탄을 하네요.

이제는 선교지에 세운 17교회 방문은 가능하지만 단기팀 취소와 단기팀이 지원을 약속하여 미리 건축해 놓은 교육관 등의 시설과 사역 장비 구입 등 미리 지출했던

금들을 치유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주시시오. 까라소주 약 300명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전도 세미나를 까라소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유럽으로 가는 Liberia 항공이 운항을 중단한데 이어서 United 항공도 운항을 일시 중단했으며 Delta 항공도 매일 1회에서 주 1회, A.A. 항공도 매일 3회에서 1회로 그것마저도 더 줄일 계획이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는 1.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의 안전을 위해 2. 선교사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위해 3. 사역지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도 사랑으로 섬겨 주신 선교의 동역자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8월 26일 이동홍 드림 missionnica21@gmail.com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 ✓ 현수막 | 천막
-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 프로모션 상품
-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롤업배너, 미디어벽, 현수막

2018 교회표어: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교회

2017.12.31 주일 저녁 10시 30분 비전센터 분당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기독교 경영 전략

기독교 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24)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성경적 회계 전략(1)

눅16:2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성경적 회계 전략은 기독교 경영자가 돈과 재물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에 대한 바른 성경적 원리를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A. 회계

성경적 회계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는 기업이 외부 이해 관계자들(주로 기업의 현재와 미래의 주주 및 채권자들)에게 기업의 활동을 재무적 용어로 보고하는 것을 다룬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계업무는 재무회계에 속하는 일들을 한다. 재무회계(Tax accounting)는 세금납부와 관련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회계시스템이다. 재무회계 분

기업이 청산될 때 비로소 기업의 궁극적인 성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결정을 위하여 청산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므로, 회계 담당자는 기업의 활동에 대한 보고를 위해 연도, 분기와 같은 기간을 나눈다. 거래는 발생주의 기준(Accrual basis)에 의해 처리된다.

수익은 현금으로 입금되는 때와 상관없이 소유 시점에 따라 기록되며, 비용은 현금에 지불되는 때와 관계없이 발생된 시점에 기록된다. 따라서 이러한 발생 과정은 경영자가 수익과 비용 그리고 순이익이 기록되는 시점을 조작할 여지를 남겨 둔다. 발생주의 회계에 내재하고 있는 추정 과정은 윤리적 행동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상황에 남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은행은 약

회계전략: 투자 의사 결정 위한 재무 정보 수집 분류 전달 시스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모든 사람과 조직은 하나님에게 책임

있어야 한다. 회계(Accounting)는 조직의 의사결정에 이용하기 위해 재무 정보를 수집, 분류 및 전달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회계 자료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주요 형태는 모든 차원에서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이다.

기업의 경영자들은 여러 가지의 설비 투자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각각의 투자 안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현금 흐름과 순이익의 크기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조직이 운영을 위한 자금을 은행으로 대출 시, 은행의 대출 담당자는 고객의 재무제표를 보고 대출 조건을 결정한다.

회계에는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 세무회계(Tax accounting), 관리 회계(Managerial Accounting) 및 회계 감사(Auditing)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야는 정부(Government)라는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책임이며, 따라서, 세무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은 재무회계와 회계감사에서 다루는 투자 및 대출 의사 결정과는 크게 다르다.

이에 반해, 관리 회계(Managerial Accounting)는 경영자들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특별히 제조를 하는 기업 활동에 있어서 원재료, 조립, 생산, 제품출하 및 상품판매 등의 과정을 다루는 회계 시스템이다.

마지막으로 회계 감사(Auditing)는 기업의 제공하는 재무제표에 대한 공정성과 확신에 대해 독립적이며 객관적인 의견을 표명할 목적으로 회계 기록을 검토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외부회계 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CPA(Certified Public Account)에 의해서 수행된다.

B. 발생주의 회계(Accrual basis Accounting)

기업의 성공은 주로 영업 활동에 든 비용을 초과한 수익인 순이익을 가지고 측정한다. 사실 투자자와 채권자들은

성 채무 손실에 관련된 비용을 과소 추정함으로써 보고되는 순이익을 과대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현금의 입금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는 현금주의회계(Cash basis Accounting)와 달리 발생주의회계(Accrual basis Accounting)는 수익을 발생한다고 확정되어 되면 수익으로 인식하고 지출이 확정되면 지출항목 기록하는 방식이다.

C. 회계 책임(Accountability)

성경은 회계 책임(Accountability)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으며, 성경적 원리가 회계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설명해준다. 하나님의 경제에서 모든 인간은 책임을 진다. 어린이는 부모, 친구 및 학교 당국에 대해 책임이 있다. 어른은 배우자, 교회, 친구, 종업원, 고객, 은행, 정부 등에 책임을 진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조직은 하나님에 대해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dr.jameskoo@yahoo.com

매일가정예배

허운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새로운 피조물(고후5:17)찬88장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창조의 사건에 비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지 아니하고 영으로 아는 세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첫째, 누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제한시킵니다. 곧 창세전 택함 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에게 영생이 있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교제하며 외식에서 벗어나 진실주의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둘째, 그

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1)이전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 해결됐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재창조의 영이 새사람으로 태어나게 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2) 온전한 새 것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어둠과 혼란 속에 있는 세상을 가장 선한 세계로 창조한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약속된 새로움을 누립니다.

화 직분의 변화(고후5:18-20)찬456장

신분의 변화는 직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마귀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변화에 관해 사도는 어떻게 증거합니까? 첫째,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근본이 바뀌어졌다고 말합니다(18). 요한도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출생해 하나님의 새 영을 가졌다고 말합니다(요1:13). 둘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습니다(18). 절대적주,

절대질망에 빠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렘23:18, 22). 셋째, 화목의 사건이 되게 하셨습니다(19). 화목을 경험한 자가 세상을 향해 화목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18). 세상을 향한 복음전파는 원수된 자를 돌이키는 일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합니다.

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고후5:21)찬209장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일 곧, 정의가 구원의 중심에 놓인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의인이 됐습니까? 첫째, 그리스도가 완전한 대속물이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모든 죄를 완전히 제하시고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롬5:8). 둘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의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기록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거룩한 사람만

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임으로서 그 자리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사탄의 온갖 참소가 무시되는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셋째, 그 교통은 온전한 영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의의 열매는 관용, 화평, 자비 그리고 긍휼입니다(약3:17참조). 이런 의로 시작할 구원을 온전한 의 곧,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 전심 전력해야 합니다.

목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고후6:1-2)찬318장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어떻게 응답해야합니까? 새도주는 새부대에 들어야 하는 것처럼 새 언약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시대는 어떤 성격을 가집니까? 첫째, 구원의 날입니다. 옛 언약 시대에도 구원을 주셨으나 이 시대는 제도적으로 구원을 주시는 때이기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열심 있는 전도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은혜의 날입니다. 어떤 악인이라도 주께로 돌이키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슬비 같은 은혜가 소낙비 같은 은혜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림자가 실제로 완성됐습니다. 셋째, 영적 긴장을 필요로 하는 종말 시대입니다. 제3의 시대가 없이 모든 구원이 이미 성취됐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 곧, 경건에 주력해야 합니다.

금 의의 무기란?(고후6:3-7)찬257장

그리스도인은 삶의 무대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복음 때문에 온갖 유혹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4-5절에 9가지 실제적 난관을 당할 때 사도는 의의 무기를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환난, 공평, 고난, 매맺음, 간헐,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막지 못함의 곤란은 참된 사랑으로 대할 때 이깁니다. 둘째, 진리의 말씀입니다. 육체적 고

통뿐만 아니라 따라오는 영적난관 곧 거짓교훈은 오직 진리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든든히 해야 이것을 이깁니다. 셋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자는 모든 생활에 아브라함처럼 공의와 공도를 나타내는 목표를 이루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창18:19). 이 의의 무기를 잘 사용합시다.

토 신자의 승리 비결(고후6:8-10)찬514장

신자는 나쁜 환경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의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나? 첫째, 악한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꿉니다. 수치스러운 명예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꿀 수 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대한 이름을 가질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8, 요1:13). 둘째,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입니다. 바울처럼 모든 일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빌4:12-13).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리며 애통한 자가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셋째,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경건한 근심으로 항상 기뻐하는 즐거움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놓여 있습니다. 모든 난관을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십시오 반드시 이깁니다. 준비된 승리를 누립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Includes contact info for churches like Galilee, Wungo, Bexco, Benel, Boston, Salt, etc.

신앙과 삶



하형록 목사
(갈보리비전교회 담임, TimHaahs 회장)

“세상의 고속도로에서 하나님의 고속도로로!” (4)

스물아홉 나이에 중역의 자리에 오르고 성공가도를 달리던 서른셋의 어느 날 그에게 예고 없이 찾아온 불행. '심실빈맥'이란 판정을 받고 생사를 오가야 했던 그는 절박한 위기의 순간들을 필사적으로 넘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심장이식 수술을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는 잠언 31장에서 얻은 지혜로 하나님의 기업 '팀하스(TimHaahs)'를 시작했고 잠언 31장에서 뽑은 주옥같은 성경의 원리들을 그대로 실천하며 비즈니스계의 하나님의 모델로 쓰임 받고 있으며 현재 갈보리비전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본 글은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P31'에 수록된 강연을 발췌 정리했다.

내 몸 안에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

심장 전문의인 아이젠 박사는 정확하고 냉정하게 내가 처한 현실을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심실빈맥 증상이 앞으로 얼마나 빨리 심각해질지 모르므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능한 빨리 심장이식수술을 받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 후로 나는 내 몸 안에서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전쟁을 시작했다. 먼저 심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수술을 했다. 아이젠 박사는 임시방편으로 심박조율기(pacemaker)를 몸 안에 넣는 수술을 해주면서 제세동기(defibrillator)란 보조기구를 또 하나 넣어 주었다. 제세동기는 심장박동이 멈출 때 인위적으로 심장에 자극을 주어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장치이고 심박조율기는 빨리 뛰는 심장의 박동 속도를 늦춰 주는 장치다.

출근과 입원을 번갈아 가며 제세동기를 몸에 넣는 수술을 받고 퇴원하기까지 6개월가량이 흘렀다. 당분간은 기계에 의지해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퇴원 수술을 하고 나오는데 또다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심장이 빨리 뛰자 제세동기가 강한 전기충격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심장 박동 속도는 도무지 늦춰지지 않았다.

나는 숨을 조여 오는 빠른 심장박동과 마치 심장을 터뜨릴 것처럼 강하게 충격을 가하는 제세동기의 압력을 동시에 받으면서 '이제 정말 죽는구나!' 하는 강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었고 그 길로 다시 응급실로 돌아가 기계를 접했다. 아이젠 박사는 기계가 내 몸에 잘 맞지 않는다고 판단, 기계를 바꾸는 재수술을 했다. 그렇게 입원을 한 채로 다시 두달을 더 병원에 있어야 했다.

그 후 퇴원을 했지만 심실빈맥증상은 계속됐다. 아니 점점 그 빈도가 잦아져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심한 박동을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곤 했다. 아이젠 박사가 전기절제술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제거했지만 하나님 없애면 또 다른 곳에서 생겨났고 거의 24시간 진정제를 맞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의 심장은 통제 불가능상태까지 가게 됐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식수술만은 피하고 싶어서 나는 그때부터 약물에 의지해 1년 여를 버텼다. 하지만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어느 날 아이젠 박사로부터 "이젠 집에 돌아갈 수 없다 입원하라"는 통고를 받은 것이다. 이식수술 외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지경까지 간 것이다. 그렇게 나는 30대의 전도유망한 나이에 병원 침대에 누워서 남의 심장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참 암담했다. 나의 상징이던 빛나는 당당함과 강인한 의지, 그리고 불굴의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심장이 적당한 속도로 뛰지 않는 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할 수조차 없었다.

당시 우리 아이들은 겨우 두 살과 세 살이었다. 더구나 이런 상황이 생길 줄 모르고 큰 짐을 산지 얼마 안 된 때라 경제적으로도 힘들었다. 짐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불경기라 입자가 섰다 나가지 않았다.

나의 상태도 호전되지 않았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으니 앉아도 힘들고 누워도 힘들고 고문 중에 그런 고문이 없었다. 한번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면 고통도 고통이지만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두려움이 덮쳐왔다. 먹던 약이 듣지 않자 병원에서는 계속 약을 바꾸어 가며 위급한 상황을 넘겼다. 하지만 모든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모르핀(morphine)을 놔주기도 했다.

의식이 살아 있어야 심장이 뛰기 때문에 병원에서 어떻게든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특히 나의 주치의인 아이젠 박사가 나를 살리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내 상태가 좋지 않

으면 퇴근도 하지 않고 밤새 나를 지켜보곤 했다. 중환자실에서 내 심장의 심한 박동을 멈추게 하는 모든 약물을 다 맞았지만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었다. 병원의 사들의 아침 인사가 "팀이 아직 살아있어?"였을 만큼 심각했다.

당시 내가 살 확률은 25퍼센트였다. 심장병 환자의 절반쯤은 병원에서 심장을 기다리다가 숨을 거둔다. 남은 절반은 심장 이식수술을 받은 후 1년 내에 감염 후 유증으로 죽는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도 평균 수명이 10년 남짓이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30대 초반인 내가 성공적으로 이식 수술을 받는다 해도 10년 정도 더 살 확률이 겨우 25퍼센트인 셈이었다.

한번 입원하면 적어도 6개월은 병원 생활을 하게 된다. 내 생체 조건에 맞는 심장이 그리 빨리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심장을 기다리면서 위급해지면 내 순서가 아니라도 먼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다림과의 싸움이다. 기다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다. 몸의 상태가 나빠지면 심장이 나와도 이식수술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심장병들은 살아남기 위해 피가 마르는 듯한 고통을 견뎌내며 처절하게 기다려야 하는 자기와의 싸움터이자 남보다 하루라도 먼저 더 좋은 심장을 받기 위해 소리 없이 싸우는 남들과의 치열한 전쟁터라고 말한다.

바로 그곳에서 나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 나갈 가망이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심장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그런 광경을 지켜보면서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만일 내가 기적적으로 살아서 이 병원을 나간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도 힘들었지만 갖 결혼해 새책인 아내의 충격이 더 컸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다 보니 아내를 못 알아보는 적도 있었다. 아내는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다. 다행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었다. 아내는 어린아이들을 건사하기도 힘든데 병석에 누운 남편까지 돌보아야 했다. 그러기를 2년여가 흘렀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살고 싶었다. 꼭 살아서 이 심장병동을 나가고 싶었다.

(정리: 이성자 기자)

Food in Bible-꿀(Honey) (3)



최성은
(Ph.D, RD, 쿼츠칼리지 교수)

꿀이 건강에 미치는 또 다른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기침 완화, 두피 건강, 그리고 상처치유 능력이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 왜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지 아직 증명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효과들은 오래전부터 실생활에 적용되어 지고 있다. 특히 상처치료제로 꿀을 사용한 것은 오래전부터다.

'열대생물학아시아퍼시픽저널'에서는 기원전 2100-2000년에 꿀을 약 혹은 연고로 사용한 기록이 있다고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따가운 목을 부드럽게 하는 완화제로 꿀을 지정한 바 있고 목감기약에 꿀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최선의 감미료는?

건강의 목표가 다른 개개인에게 어느 한 가지 감미료를 최고의 감미료라고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요즘은 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여러 인공감미료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예를 들어 Saccharine, Sucralose, Aspartame, Stevia 등등), 모든 제품이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토록 받기 어려운 FDA 허가를 받은 이들 인공감미료들의 유해성 논란이 끊임없고 때로는 아마도 과학적 증거 이상의 이유로 인해 FDA 허가가 번복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칼로리가 0에 가까우면서도 설탕의 몇백배의 당도를 지닌 이들 감미료들은 체중을 줄여야 하는 다이어트 환자나 혈당 조절을 해야 하는 당뇨 환자에게는 매우 필요한 감미료인 것이다. 하지만 체중조절이나 혈당 조절보다 위에서 언급한 꿀의 긍정적 건강 효능이 필요한 사람의 경

꿀은 기침 완화, 두피 건강, 상처치유 능력 있지만 칼로리 내며 혈당 올려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해

우 꿀을 감미료로 선택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는 것이다.

인공감미료의 뒷맛(after taste)을 싫어하고 당뇨 환자가 아니며 설탕의 음식에 미치는 질감과 맛이 필요한 경우라면 설탕이 최선의 감미료일 수 있겠다. 옥수수(corn) 생산의 왕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그 부산물로 만들어져 거의 모든 판매 식품에 쓰여지고 있는 HFCS(High Fructose Corn Syrup)은 최근까지 미국 비만을 급증의 주범으로 몰려 홍역을 치르다 설탕보다 유의적으로 비만을 더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연구 자료를 내보냈으로써 간신히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 HFCS는 설탕과 달리 갈변을 일으키지 않고 설탕보다 적은 양으로 같은 단맛을 내 비용열감을 할 수 있는 이점으로 인해 음료업계에서 쓰여지는 감미료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단맛을 주는 것 이외에는 건강에 아무 이득이 없는 설탕과 HFCS 등 감미료를 요즘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 같아서 이들 감미료의 섭취를 줄이자는 주장을 강력히 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꿀이 아무리 좋은 건강적 효능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칼로리를 내며 혈당을 올리기에, 꿀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며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잠25:16, 27).

또한 미국 소아과학회는 꿀에 무서운 식중독인 유아보툴리누스증(botulism)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 함유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섭취를 권장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단맛에의 유혹이 있을 때 꿀송이처럼 단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 모두 그 달콤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cse1001@gmail.com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음악대학 및 대학원
(BM,MM,DMA 학위과정)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교수진! 실기 일대일 교육, 100% 온라인 이론 강의!

<p style="text-align: center;">(i)</p> <p>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p> <p>CAMS 시스템을 통하여 100% 온라인 음악 강의를 실시되고 있으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수진들의 최고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p> <p>최고의 교수진</p> <p>유럽과 미국에서 최고의 기량으로 각 음악실기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교수들로부터 일대일 실기 실습과정이 on and off line 에서 이뤄지고 있다</p>
------------------------------------------------------------------------------------------------------------------------------------------------------------	------------------------------------------------------------------------------------------------------------------------------------------------------------

세계 음악지도자 발굴과 양성을 위해 Missouri주 Wentzville에 32년의 전통을 지닌 Midwest University의 교수들은 유럽 및 미국의 우수 음대대학원 음악박사 학위자들로 각 영역에서 최고의 기량과 리더십으로 겸비된 연주자들로써, 현재 지도를 받는 학생들 가운데엔 한국 예술종합학교, 이탈리아의 Giovanni Paisiello Conservatory, 독일의 Hochschule für Musik Karlsruhe, 미국의 Manhattan School of Music, Johns Hopkins Peabody Conservatory, The Juilliard Music School 출신자가 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학사 Bachelor of Music 129 학점
- 석사 Master of Music 48 학점
- 박사 Doctor of Musical Arts 60 학점
- 전공 : 피아노, 음악코칭, 성악, 지휘, 작곡, 현악, 관악기, 음악융합예술

모집기간

2018년 7월 13일까지

지원자격

- 학부 :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동등 학력자
- 대학원 : 음악대학졸업 (Musical Arts Convergence 전공은 음악교육대학 졸업자도 가능) 혹은 동등 학력자
- 박사 : 학부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음악을 전공한 자

학위 취득방법

-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 I-20 혹은 J-1 Visa
- 직장, 사역을 떠나지 않고 어디서든지 세미나, 소집특강, 온라인으로 학점취득
- 영어, 한국어, 중국어 언어로 학점 취득 가능

Midwest 음악동문

구두회박사 (前 숙대 음대 학장), 황병덕박사 (前 연대 음대 학장), 박재호박사 (前 한양대 교수), 윤학원박사 (前 중앙음대 학장), 전희준박사 (前 찬송가총회대표) 등 일반 음대교수 수십명이 활동중이다.

입학, 편입, 유학 등 자세한 문의는 미국본교 (636)327-4645 usa@midwest.edu / 입학상담 Dr. Dae Kim (dgkim@midwest.edu) / 등록상담 Mr. Jay Ham (muadm@daum.net)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4645 / Fax : (636)327-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 (571)730-4750 / Fax : (571)730-4751
E-mail : wdc@midwest.edu